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illegible]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金本位復歸反對 善隣政策은 持續!
今明間루 大統領指名은 確實
米國民主黨大會

民主黨政綱

【필라델피아發電】民主黨의 大統領指名大會는 廿三日第一日의 幕을 開하엿다。그런데 最近알·스미드氏를爲始하야 民主黨의 二三長老가 루즈벨트大統領反對의 强硬態度를 表明하야 波瀾을 보엿스나 結局 黨大會에서는 今週 金曜 或은 土曜日 滿場一致로 루즈벨트氏를 大統領候補로 推薦하고 가-너-氏를 副大統領候補로 推擧할것이 確實하게되엿다. 앨·스미드氏는 이形勢에 對하야 激怒하고잇스나 그것은 도로혀 黨代議員들의 루즈벨트贊成氣勢를 助長하는 結果가 되엇다 北다코다州 共和黨出身으로 目下 中立인 윌리암·렘케氏가 民主黨으로 부터 다시 自由主義라고 稱하는 政綱을 들고 第三黨運動을 起하엿스나 紐育選出 民主黨上院議員 와그너氏는 廿三日 루즈벨트大統領의 承認을 어든 政綱을 가지고 當地에 到着하엿다 該政綱은 스미드氏와 렘케氏의 中間이되는것인데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重要產業政策、小麥、棉花等의 生產過剩、價格下落에依한 農村不安、或은 近年 頻發되고잇는 石炭스트라익의 解決等에 善處하기爲하야 州政府에만 맛기지안코 聯邦政府가 助力할것

一、金融政策、金本位復歸에는 끗까지 反對하나 購買力漸增에依한 通貨의 安定을 國民에게 約束하고 兼하야 失業救濟에 關한 現金融諸規定은 이것을 繼續助長하는同時에 右金融救濟機限을 聯邦政府로부터 州政府에 移讓하려는 共和黨의 示唆는 絕對로 拒否할것

一、外交政策、루즈벨트現政府의 『善隣政策』을 支持稱揚하면서、드디어 世界平和維持에 對한 『精神的助力』을 保障하나 國際仲裁裁判所로서의 聯盟에 關해서는 今後도 從來대로 沈默을지킬것

그리고 루즈벨트大統領은 부렛트、릿치먼、휴킨스氏等 民主黨領袖와 協議한 結果 民主黨政綱의 自由主義的色彩를 決議下命하엿다코 解釋되는데 그外 政綱中에는 一般消費者及 賃銀勞働者의 保護를 意圖하는 企業獨占의 排擊及 헐國務長官의 相互扶助的貿易政策의 稱揚等도 包含되엿다.

民主黨大會日程

民主黨大會의 日程은 如左하다

◇廿三日 正午 제임스·파레-議長의 開會宣言, 켄터키州選出 上院議員 알벤·바크레氏를 假議長으로 選擧、午後八時로부터 바크레氏의 綱領演說

◇廿四日 아-칸소-選出上院議員 죠세프·로빈손氏를 大會議長으로 選擧、午後八時부터 同氏의演說

◇廿五日 民主黨大會規定을 改正하야 大統領候補指名所要數 現行三分之二를 고처 過半數로하자는案을 討議하야 政綱으로 採擇

◇廿六日 루즈벨트大統領再指名

◇廿七日 가-너-副大統領再指名

◇廿八日 午後九時부터 西部필라델피아、펜실바니아大學의百萬人收容의 大스타디움에서 루즈벨트大統領、가-너-副大統領의 候補指名受諾演說

(寫眞은 米大統領루氏)

몬트로會議第四日

【몬트로二十五日發同盟】몬트로會議第四日은 二十五日午前 土耳其政府가 提案한 海峽條約改訂에 關한 討議를 進行하야 드디어 第一讀會를 終了하얏다 二十五日의 會議에서는 먼저 蘇聯邦代表리트비노프外相이 蘇聯艦艇의 海峽通航自由를 거듭强調하고 또 黑海에 海岸線을가지지아니한 諸國軍艦의 海峽通航權制限을 主張하야 如左히 述하엿다

蘇聯邦은 歐亞兩大陸에 뻐처畢히 그連絡을 爲해서도 海峽의 自由通航은 必要하다 一方 黑海의 沿岸諸國以外의軍艦通過를 自由로하면 이에따라 黑海沿岸諸國의 脅威는無用으로 增大될憂慮가잇다 따라서 此等軍艦의 通過를 制限하야 脅威增大를 防止할必要가잇다

이어서 日本代表 佐藤尙武大使는 『土耳其政府가 戰爭의 脅威를 認定한境遇에는 이뜻을聯盟理事會에 通告하여야한다』는 條項은無用이다 라고하고 畢히海峽條約締約國에 通告하는것만으로 充分하므로 同條項은 撤回할것이라고 主張하엿다 英國代表는 聯盟理事會通告는 必要하다는 立場을 固執하야 結局 佐藤大使는 次回에 다시 日本政府의 意向을 說明하겟다는 旨를 述하고 散會하엿다 本會議는 聯盟理事會及 總會開催中은 休會하고 聯盟總會閉會後 再開하기로되엇다 그런데 佛國代表 포-롱·봉쿠르氏는 上院의 外交討議에 出席하기爲하야 會議終了後 飛行機로 巴里로 向하야 歸還의 途에 올랏다

人民戰線成功에 트로츠키氏暗躍
蘇聯邦의巧妙한 赤化工作이라고
佛國民戰線蹶起?

트로츠키氏

【巴里發電】佛國、西班牙、白耳義等의 總罷業에서 左翼이 勝利를示한 諸國에는 最近 罷業運動이 燎原의火와가티 일어나 背後에 콤인테른의 손이 움즉이고 잇는것이 아닌가하는 疑心이 濃厚하엿던바 果然 이運動의 黑幕에는 蘇聯革命의 巨物 트로츠키氏가 伏在한것이判明되어 佛國政界에 大衝動을 與하고잇다 消息通의 探察에 依하면 콤인테른은 昨夏의 第七回大會에서 從來 資本家階級의 走狗라고 排擊해온 社會民主黨뿐아니라 널리 進步的勢力을 糾合하야 反팟쇼의 國際戰線을 樹立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그方法으로 人民戰線을 採擇하엿는데 直接 佛國、西班牙等 共產革命의 可能性이잇는 나라에 指導員을 派遣하야 赤化하려할때에는 蘇聯政府와의 友好關係上 滋味업는 結果를 招來할것이므로 多年 反目抗爭을 繼續한 反幹部派의 巨頭 트로츠키氏와 秘密히 講和하야 同氏를 通하야 西歐諸國의 反팟쇼運動 總罷業을 誘導하야 共產革命에 이르게할 코-스를 選擇하게하엿다고 보인다 트로츠키氏는 最近 諸國로부터 佛國內에 進出하야 腹心인 麾下佛人 상·메크레로와 瑞西人 프레드·쉐라等을 操縱하야 暗躍中인데 佛國將히 西班牙左翼內에 所謂 트로키즘을 繼承한者 不少하야 그地盤이 잇는것만큼 同氏의 行動에는 便宜하다고보이며 이때문에 트로츠키氏는 佛國滯在期間을今年十二月까지 延長하도록 最近佛國政府에 申請하엿다 蘇聯革命의祖라고 稱하는 트로츠키氏가 果然 後輩스탈린氏가 引率하는 콤인테른의 頤使를 甘受할는지 疑問이나 콤인테른이 同氏에게 委囑한 任務의하나는 니스、알제리아、모록코等 佛領植民地의 反亂煽動과如한 可恐할것이 잇다고 推定되는 點도잇서 佛政界 右翼共和同盟側에서는『패부른 革命浪人 트로츠키』를 國外로 逐放하라고 떠들고잇다

第九十二回聯盟理事會 廿六日開會

【쥬네브二十五日發同盟】第九十二回國際聯盟理事會는 드듸어 二十六日午後五時부터 議長 이든英外相司會下에開會하기로되엇다 佛國新外相델보스氏도 今回에 처음으로 出席하야 國際外交에 데뷔할터이다 伊에紛爭問題도 議題에 올랏스므로 伊太利代表는 制裁不撤去를 방패로 出席할 模樣은 업다 今回의 理事會의 重要議題는 如左하다

一、伊에兩國間의紛事
一、獨逸政府의 로카르노條約破棄問題
一、이락으로부터 國外에移住한 시리아人의 居住問題
一、奴隷問題審議委員會의 最終會議報告
一、海牙國際司法裁判所判事中缺員二名의補充選出

平和的手段으로 統一工作을貫徹
大總統候補는希望치안는다
西南問題로蔣氏聲明

【南京二十五日發同盟】行政院長蔣介石氏는 二十五日 中央通信社를 通하야 西南問題에 關하야 聲明을 發表하고 和平統一方針을 闡明하엿다 聲明書는 如左하다

一、中國의 治亂興亡은 國際情勢에 左右되는것이 아니다 中國自身에 가장責任이 잇는것을 忘却해서는 안된다 萬若上下一致 團結奮發하면 如何한 逆境도 突破하기는 困難치안흐므로 中央은 對內和平統一을 꾀해야할 決心이다 全國의 同胞는 이뜻을 體하고 一致協力 國民의 天職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一、中國은 統一國家가 되지안흐면 안될터인데 統一國家도 地方의 狀況을 尊重할수는잇다 即中央은 各省의 政治에 誠意로써 協議하야 適當한方法을 決定하고 또人力、財力으로써 그發展을 圖하기를切望하고잇다 各省人士는 中央의 和平政策을 支持하고 國家의 基礎를 鞏固히하야 民族의 地位를 노피지안흐면안되다

一、軍規를 바르게하고 軍令을 統一함은 民族의 成否와國家存亡의 唯一의 關鍵이다 各省軍隊의 行動은 中央의命令에 依하여야할것이다 現在兩廣의 軍隊가 맘대로 貴州、湖南、江西、福建에侵入한것은 이原則을 犯한것으로 遺憾이다

但 兩廣의 將士도 반드시 中央의 意思를 尊重하고 常軌에 復하야 國家를 爲하야 互相努力하리라고 確信한다 萬若 如斯히하면 나는 虛心坦懷 旣往에 追及치안코 또 中央各軍隊를 兩廣에 侵入치 안할것이다 그中央의 뜻을 兩廣當局이 諒解하기를 希望한다.

一、나個人으로서는 內意로 大總統候補가될를 希望치안는다 고聲明하엿거니와 또何等 私利를 圖하는것도아니다 民族國家인 全國的見地에서 處事한 것뿐이다 (寫眞은 蔣介石氏)

廣東側戰意鞏固

【廣東二十五日發同盟】陳濟棠氏는 二十四、五兩日에 亘하야 首腦部로써 一大軍事會議를 開하고 廣東軍撤退에 伴한 陣容을 다시짜고 對中央軍事作戰에 最後的協議를 遂한結果 當初 非戰論者이엿던 余漢謀、繆培南兩氏도 事態至此엔 不得已하다하야 끗까지 省境을 支持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여 곳 戰時工作準備를 嚴命하엿다 余漢謀氏를 除한各軍師長은 新作戰計畫을 携하고 一兩日中에 前線에 歸還할것으로 戰雲은 이에 急迫하게 되엿다

軍需工業國有化 佛內閣正式決定

【巴里二十五日發同盟】佛國政府는 二十五日午前 블룸首相司會下에 閣議를 開催하고 國防相달라듸에氏提出에依한 軍需工業國有化案에 關한 法案을 承認하엿다 또 二十六日午前 閣議를 開會하야 公共土木業法案을審議한後 軍需工業國有化案과함께 午後의 下院에 提出할 模樣이다

聯盟中立國代表 制裁撤回키로決定

【쥬네브二十五日發同盟】聯盟理事會를 明日에압두고 瑞西、諾威、芬蘭、丁抹、和蘭、瑞典、西班牙各中立國代表는 二十五日夜非公式會議를 開催하야 丁抹代表몽크博士司會下에 開會하고 總會에臨할 對策에關하야 協議한結果 四圍의情勢에 順應하야 伊太利政府에對한 制裁를撤回키로 決定하엿다 但에디오피아 帝國의 倂合을 承認할與否에 關해서는 意見이 一致되지안코 單히總會召集을 提議한亞爾然丁代表의態度如何로 方針을 樹立하기로 決定하엿다 中立國各代表는 二十六日 다시 會議를 續行하야 聯盟改組案에關하야 意見을 交換할터인데 數가 某程度로 힘이잇는 聯盟政局에서 此等中立國의 態度動向은 聯盟政治上의 將來에 相當한 重大影響을 與할것으로 豫想되다

侵略的成果는 結局不承認?
今日開會의理事會

【쥬네브廿六日發同盟】第九十二回聯盟理事會는 二十五日 午後五時부터 聯盟新會館에서 英國代表 이든議長司會下에 開會하고 對伊制裁撤回案을 審議하기로 決定햇는데 이미 英佛白三國政府와 中立諸國政府가 制裁拋棄를 決定한以上 大勢는 旣定되어 聯盟理事會는 事實上聯盟原則의 拋棄를 公式으로 確認할밧게업다고 보이는바 南阿弗利加代表와 如한이는 에디오피아帝國과의 地理的關係上 制裁拋棄에 關하야 猛烈히 反對한다고 하므로 議事는 相當한 紛糾를 不免하리라고 보인다 에디오피아皇帝 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도 今日의 理事會開會直前에 쥬네브에 進出하야 聯盟會館附近의 宿舍에서 理事會의 議事를 監視하고 또는 호렐外交로서 最後의 活躍을 圖할것이라고 傳하므로 理事會의 議事가 豫想外로 波瀾을 捲起할지도 모른다 皇帝가 聯盟理事會에 出席할 與否는 豫側을不許하나 倫敦出發에 際하야 希望에 充滿하야 쥬네브로 向하신다는 旨를 宣明하엿슴으로 胸中에 무엇인지 期하는바잇슨事實에 徵하더라도 皇帝가 自國擁護에 殘存한 最後의 希望을 看過하리라고 생각되지안는다 結局 理事會가 制裁撤去의 決議를 採擇하더라도 伊太利政府에 對한 侵略國의 判定을 依然撤去치안코 에디오피아帝國의倂合에關해서는 依然侵略의成果를承認치안흘立場을 堅持하고 理事會와總會에서 左의 決議案을 採擇할것으로 豫想된다

一、聯盟國은 聯盟各國의領土保全及 現在의 政治的獨立을 尊重할 義務가 잇는것을 거듭 確認한다

一、理事會와 總會는 侵略의 成果를 承認치안는다

右決議의結果 伊太利政府가 再次 非協力의 政策을 强化할 念慮가잇서 聯盟政局의 前途는 依然 重大危機는 不免할것이다 各國代表는 느저도 二十六日午前 쥬네브에 到着하야 理事會의 開會를압두고 即時 호렐折衝을 開始할것으로 豫想된다

人事·集會

▲吳淸氏(總督府囑託)入判洞自宅電話番號光化門二二九七番으로變更

英巡洋艦流用 英國서日本에照會

【倫敦二十五日發同盟】英國政府는 倫敦海軍條約保有와 甲級巡洋艦四隻을 乙級巡洋艦으로 流用할同意에 關하야 日米兩國政府의 回答을 接하엿슴으로 그內容을 仔細히 檢討中인데 英國政府는 米國政府가 그內容에잇서서 倫敦條約第二十三條의 免除條項을 援用한事實에서 다시 日本政府의 意向을 質問하기로되어 이미 照會를發하얏다고한다 英國政府는 日本政府가 免除條項援用에 關하야 異議를 가진境遇에는 同條의 條項改訂을 要하지안코 方式을 고치고 米國政府의 支持에따를 圖라고 解釋된다

話題解說 米國大統領選擧制

◇ 來十一月 大統領選擧를 압두고 米國社會에는 方今 選擧戰이 本格化되여잇다。그리고 요즈음 特別히 選擧戰에 活氣가잇는것은 各政黨의 正副大統領 候補選擧戰이 잇는 까닭이다。即 去五月末에 社會黨은 黨全國大會를 클리브랜드市에 열고 놈만·토-마스氏를 次期大統領候補에 選定하엿고、共和黨은 今月九日부터 클리브랜드市에 黨全國大會를 열고 칸사스州 現知事 알프레드·랜든氏를 次期大統領候補로 選定하고、民主黨은 二十三日부터 필라델피아市에 黨全國大會를열고 次期大統領候補選擧를開始되엿는데 日程表에依하면 今廿六日中으로 候補가 指名될터이다。

◇ 이와가티 米國各政黨은 過去一個月동안 大統領候補選擧戰으로 야단법석하고잇는데 이 大統領候補選擧는 어떠한 經路로 오는것이며 候補가 決定된 今後에는 어떠한 經路로 正式大統領이 當選되는것인가? 米國大統領選擧制度는 一般投票에依한 間接選擧를 採用하엿다。그리고 政黨政治가 確立된나라이니만치 大統領選擧에잇서서 政黨이 主導役割을하고잇다。即 各政黨은 各各 全國黨大會를열고 黨先上大統領候補를 選定하는데 다시 各政黨內에 一人以上의 大統領候補를 세울수는업다。黨大會는 各州黨代表로써 構成되는데 州代表選擧方法에는 세가지가잇다。

一、各州各黨의 各分派가 代表候補者를 決定한後 一般投票에、附하야 全國大會代表를 決定하는方法。

二、各州大會를열고 그席上에서 投票決定하는 方法

三、以上과가튼 [illegible] 各州의 支會에서 選擧、代表를 指名하는方法 그리고 以上方法으로 決定된 州代表에對하야 州黨支會에서 大統領候補를 指名投票케하는 州와 全然白紙로 하는 州가잇다。

◇ 以上 各州代表로 構成된 政黨 全國大會에서 正副大統領候補가 決定되면 十一月第一火曜日(今年은 十一月三日)에、總選擧를 擧行하게된다。그런데 이十一月 選擧는 普通 大統領 選擧로 알여잇지마는 其實은 大統領選擧가아니라 大統領選擧人 選擧인것이다。그리고 總選擧에 依하야 選擧된 各州選擧人은 一九三三年十月十五日 修正憲法(第七〇議會=第二十條)에 依하야 翌年正月 第一水曜日에 各州首都에 集合하야 大統領을 選擧하게된다。그러나 十一月總選擧에依하야 이미 政黨勢力이 分明하여젓스니마치 이 正初의 大統領選擧는 一種形式에 不過한 것은 말할것도업다。大統領選擧(總選擧를意味)는 每四年 擧行되게되는데 이해는 恒常 閏年이되며 大統領의 任期는 四個年인데 從來에는 三月四日로써 滿了되엿스나 修正憲法에 依하야 今後는 正月二十日正午로서 그任期가 滿了되게되엿다。

八面錄

◇電氣의 民有國營案은 賴母木遞相의 確乎不動하는主張이올시다

◇義務敎育八年延長案은 平生文相의 平生을걸고 固執하는方針。

◇兩大臣이 모다 七十이 넘엇스니 그야말로 最後의 勇氣를 내는모양。

◇七月三日 國策閣議를 압두고 新國策으로 出品될것이 벌서 三十餘件이라는가。

◇東京名物 『梅雨』가 오기前에 國策洪水가 날모양。

◇航空省의 新設論이 陸軍部內에 有力하다고。

◇每年 百萬名式 增加하는 人口의 生產作用까지 마러볼 最高官廳인가。

四十時間勞働制와 最低賃金制確立
有給休暇制와 家族手當增額도 斷行
白國首相의施政演說

【브랏셀二十四日發同盟】白耳義首相방·질랑氏는 二十四日 午後下院에 臨하야 新政府의方針을 闡明하엿다 右方針은 社會、經濟、政治、外交의各般에亘하야 大規模의 改革案을 包含한것이다 要旨는如左하다

▲社會政策
一、最低賃銀의確立
一、有給休暇制
一、四十時間勞働制
一、家族手當의增額
一、失業救和及義務敎育年限의延長

▲經濟政策 右目的을 實現하기爲하야 政府는 外貨의 低利借換、或은銀行統制等 各種의 經濟手段을 講究할것

▲政治組織(略)

▲外交政策 從來의 方針을 踏襲할것

(寫眞은 질랑白國首相)

HEMOCAIN
鎭痛鎭靜 鎭痙鎭咳 新藥
ヘモカイン 헤모카인
一、一cc一〇管入 一、一cc五〇管入 一、二cc一〇〇管入
(試供品進呈 但醫師證明書要添付)
總販賣元 京城府鍾路 三省聯合新藥研究所 振替京城二三九二七
全鮮各藥房에서販賣함

(規則書送呈)
電醫養成 (醫師同樣聖業) (全國無試驗開業)
東京電醫學校直系
朝鮮高等電醫 南鮮講習院
釜山町寶水三ノ六二

二好白粉
朝鮮京城 二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二七番

I-KATOL
キカトール

皆樣の マスター 香粧品は 高貴原料 使用の結果 小額 値上 を致しました

마스타-愛用者여러분께

マスター香粧品은今番에高價한三大貴重原料를應用하엿기때문에價格引上이되엿지만生產費의高騰에比較하면愛用者의負擔은極히小額이며、다음大負擔은全部本舖의大奉仕가되는것이다

活性特殊白味劑
過剩皮脂の吸收調節
完全不透明白味劑
惡質日ヤケの防止
獨逸特許スキンホルモン性ラセラン
ニキビ·小皺·吹出物·タルミを防ぐ

值上品目 (一個에對하야)
一、マスター五百番衿白粉(大瓶) 五錢引上
一、マスター五百番衿白粉(小瓶) 參錢引上
一、マスターかびん白粉下 貳錢引上
一、マスターホーム パクト 五錢引上
一、マスターハンド パクト 參錢引上
一、マスターほほ紅(紙容器) 參錢引上
右는六月一日부터實行합니다

「그리고基本美肌劑가配合되여잇는關係로 今年에는며드름도안나고요、」

밤동안엔雨意衝天 날새이면暴炎滿地!

벗적벗적말라붓는비개뒤의五穀과百木

비는좀처럼안온다 ―京城測候所談

전조선 설상도 어느곳을 물론하고 비가 부족하야 모숨기를 마족히하지 못하고 창천을 바라보며 『비를 내립소사』 고대 빌고잇다 하루 이틀 가뭄이 이와가리작구 계속되다면 모숨기할 때를 노처버리게되야 결국은 농사를 실괴하여버릴 념려가 잇다 농촌에서는 바로 눈아페빤히 보이는 모판이 굼이나게되니 모다들 인심이 초조하게되고 도회사람들은 비가 오지안는탓으로 비차진 쌀갑시 조금도 나릴줄을 몰르니 역시 불안과 공포가 생기게된다 지난 이십오일밤 경성지방에는 구름이 두텁게하늘을 가리워서 밤사이라도 비가 한바탕 쏘다질듯하더니 밤을 새고나니 하늘은 또다시 맑아저서 일은 아츰부터 무거운태양의더운 긔운은 위험잇게 대지를 쪼으고잇다 사람마다 『아이구 더워』 하는 소리를 내지안흘수업게한다. 이십륙일오전의 더위는 작년이때보다 약 일도나 노픈 긔온으로 그대지 만흔 차도가 잇는 더위는아니나 원낙가뭄의 더위이므로 몹시도 더 심히 더운듯하다 이십륙일 경성측후소의 말을드르면 남쪽이나 북쪽 이 모다 호려잇기는하나 좀처럼 비는 올것가태보이지 안는다하나 비를 품지 안흔 휘구름뎅이는 아이못낫든 녀편네와 마찬가지로 돌로혀 원망스럽기도하다

海州邑에 또強盜

廿五日새벽老婆집에

다섯번재出現에警察도蒼惶

【海州支局電話】 지난 이십일일부터 이십사일까지 나흘동안에 황해도해주(海州)에서는 경관의 철통가튼 경계망을 뚤코 농가에 침입하야 만흔돈을 강탈한 상인강도(衆人强盜)사건이 네번이나 생겨서 해주경찰서에서는 방금 서원이 거의 총출동하야 발을 나추로 계속하야 범인을 수사하는중인데 또이번에는 다섯번재로 이십오일새벽에 바로 해주읍내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하엿다 강도를맛난 사람은 해주읍서영정(西榮町)이백칠십이번지 김금선(金金善)(六七)이라는 로파로 그는 그의 족하딸송씨(宋氏)(二七)와가티잠을 자고 잇든중이 십오일오전두시반쯤에 강도한명이 방안에 드러가서 전등불을 끄므로 주인로파는 잠을 깨여이러난즉 강도는 그를 때려서 혼도시켜 이불로 더퍼노코 돈삼천원을 당장에 내여 노라고 위협하엿다 김로파는 돈이 업다고 대답한즉 강도는 방안을 뒤저서 그로파의 소유로 해주군 금산면(錦山面)에 잇는 략백원가치되는 토지문서와 벽성금융조합(碧城金融組合)에 삽백원저금한 통장한벌과 인장이 드러잇는 주머니와 현금사원과십원가치되는 은수제한벌을 강탈하여가지고 『만약 경찰서에 알리면다음에 다시 차저와서 죽여버릴터이라』고한마듸을 해두고 유유히 어데로 종적을 감초아버렷다

피해자는 녀자의 마음에 어떠케 할줄을 몰르고잇다가 이십륙일 오전에 해주경찰서에 이사실을 신고하엿스므로 해주경찰서에서는 한층더 긴장하여지는 동시에 장곡면(壯谷面)방면에 출동한 강도수사경관대 일부를 불러드려 해주읍내부근일대를 철통성가티 에워싸고 범인을 찻는중이다

이번 이강도범인도 전일 다른 네곳에 나타낫든 가튼 범인이 아닌가 추측되는데 만약 가튼 범인이라하면 그범행이 너무도 대담한대에 누구든지 놀래지안흘수 업는터이라한다

貨物自動車隊落

乘客三名中一名即死

廿五日市外彌阿里吉音橋에서

運轉手는過失致死로東署에서取調中

이십오일밤열시쯤에 시내효제정(孝悌町) 태평화물자동차부(太平貨物自動車部)운전수 림윤두(林允斗)(二?)은 경기도제칠백사십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야 시외숭인면미아리(彌阿里)길음교(吉音橋)를 지내가다가 노피일곱자가량되는 언덕에서떠러젓는데 그화물자동차에 탓든 세명가운데서 시내한강통(漢江通) 십오번지에 사는리흥의(李興義)(三?)라는 남자는 자동차 미테 치여서 즉사하엿다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사법주임이하 관계경관이 현장에 출장하야 검증하고 운전수를 과실치사(過失致死)혐의로문초하고잇다

死刑囚의最後願

錯誤투성이調書否認

우선七名被告는再審을請求

지난 십팔일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바더원심대로사형이 확정되야 방금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대의 이슬이될날만 기대리고잇게된 간도공산당사건사형피고 김응수(金應洙)등 열여덜명중 주현갑(周顯甲)등일곱명은 이십륙일 경성복심법원형사부에 재심청구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엿는데 청구서내용을보면 대개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중거가되야 그들에게 사형판결을 내리게된 조서(調書)에 그재된 범죄사실이 그들이 실제로 행한사실과 틀님이 만타는 것으로 다시한번중분히 조사하야 사실을밝히여 그들의억울한 죽엄을 면하게 하여달라는것이다 사형피고들의 이최후의 희망인 재심청구가 과연수리될는지 어떠할지는 자못 일반의관심을 끌고잇다 오늘까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피고는 다음의 일곱명이나 남어지 피고들도 뒤이어 재심을 청구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로창호(盧昌浩)는 판결등본은 청구하엿스나 아즉 재심청구서는 정식으로 제출치 안하엿다한다

▲周顯甲 ▲高河鉢 ▲權泰山 ▲金應洙 ▲閔昌植 ▲劉泰順 ▲池蓮浩 (以上七名)

一審의無期懲役이 二審엔死刑求刑

"間共"傍系許允燮에게

간도공산당의 일파로 소화칠년오월께부터 간도연길현(延吉縣)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반동분자를 살해하엿다는 치안유지법위반사건 피고 함북길주(吉州)출생허윤섭(許允燮)(三?)에 관한언도공판은 이십륙일경성복심법원에서 지전(池田)재판장 주심 의전(依田)검사관예 미데열엇는데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대로 사형판결을 내리엿다 그는청진지방법원에서무긔징역을밧고 불복공소하엿다가 자긔는 공소를취하하엿스나 검사가 부대공소한관게로 이심공판을 빗게된것인데 전긔한바와 가티 이심에서는일심판결보다 극혀인 사형을바든것이다

乃父乃子

獵奇的事件의連鎖

吳天一의賣買行爲는 法的으로無効할가?

廿四日第一回辯論에相續權업슴을主張

第二回辯論은七月十五日에

【平壤】 보험금을 사긔하기위하여 친부를 살해한 패여무도 오천일(吳天一)의 존속살인 사건은 련긔적사건으로일반사회에 큰 충동을 주엇거니와 오천일의아들 오진하(吳鎭河)가 대동군룡연면(龍淵面)률리면(栗里面)선교리(船橋里)일대의 "밧" "논" "대지" "림야" "칠십일필 시가 십수만원의 소유지 식산 은행(殖銀)의 십명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긔와 저당권 설정등긔말소청구소송을 평양지방법원에 제긔하여 과연오천일이가원죄로 죽엇는지 또는 오진하가 술지? 이중 살홍의 련긔전사 오천일을 뛰여넘어 상속권이잇건으로 가일층충동을 일으키고잇음은 긔보와갓거니와 제일회 구두변론은 이십사일 좌등(佐藤)재판장 백(白)도광(稻光)량 배석판사 립회로 개정되엿다 원고측에서는 자긔아버지를죽인 패여무도의오천일은 상속권이업고 자연히 그의아들 오진하에게 상속권이 도라올것을주창하는동시에 오천일과 매매한법률행위는 무효라고려설했슴에 반하여 피고측에서는 오명보통죽인사람은 오천일이가아니고 설사죽엿다해도 조선관습으로보아 가족전부가 여긔에관한 혐의을 받을것이므로 오진하도 상속권이업슬것이라고 항변하여 옹수하다가 폐정하고 칠월십오일재이회변론을 하기로되엿다 엇잿든 법률조문에는 명문이 잇스나 아직판결례조차업는이사건이 어떠케 귀결될지 자못주의를끌으는다

남의땅을 제것가티 팔고契約金騙取

五萬餘圓土地詐欺事件綻露

시내종로서 사법계에서는 오만여원 로지대사긔사실을 탐지하고이십오일새벽 형사대가 돌연시내 관철정(貫鐵町)일백팔십이번지 국일(國一)려관을 습격하야 그곳에묵고잇든 경긔도부천군계양면(富川郡桂陽面)사는 신동일(申東一)(三七)―假名―이를붓잡아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인데그 혐의내용인즉 개성(開城)어떤부자의 이름으로 잇는 시내신설정(新設町)의 이천여평이나 되는 밧과 또는림야(林野)를자긔의 권리가 조곰들어잇는것을 긔화로하야 시내루하정(樓下町) 어떤부자에게 오만칠천여원에팔기로하야 그계약금으로 오천원을바다먹고 나머지를 그대로족여서 바다먹으려든것이라고한다

개盜賊놈被逮

최근 시내각처에서 집에길르는 개가업서저서 경찰에서도 수상히 녁여 경계중 이십륙일오전 지전과삼범 엄해송(嚴海松)(二七)이라는 개도적을 종로서원이 체포하엿다 그는 지난달금음날 오후비시경에 시내광화문一통(光化門通)일백구십사번지아페서 그동내 이백일번지 유춘명(柳春明)의 륙십원짜리 『세파―드』 한마리를 붓잡아다가 여름철에 개장국을 끄려먹으려는사람들에게 팔아먹은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십여마리의남의집개를 훔처 팔아먹은것을자백하엿다

咸安도普天教彈壓

【咸安】 소위차천자일거후에 보천교에대한 전북경찰부의 탄압은 본보에누차 보도한바잇는데 이십오일 함안 경찰서에서도 함안군내 수백명 보천교도를일일히 호출하며 단발을명하고엄중단속하는중이다

思想運動의咸南道 八年間檢擧五千餘

檢擧件數는六二八에五千二百名多數

起訴겨우千七百名

【咸興】 지난소화십년도부터 게속적으로 사상사건이 끄리를물고이러나 거의사상의근원지로되여잇는 함남도의사상사건의총결산통게! 함남도경찰부에서 집게한통게를보면 지난소화삼년부터 작년까지 최근팔개년동안 함남도에서발생검거한총건수는 륙백이십팔건으로 검거총인원수는 오천이백사십륙명의 다수에달한다 그중에경찰에서 취조하다가 검사국에송치한인원은 삼천륙백구십삼명이며 그중에서 또다시 긔소(起訴)된것이 일천칠백칠십구명으로 총검거인원의사분의일가량된다 그리고 이를다시년별로보면 소화칠년도의일천일백팔십사명을 최고로서 오년이 일백오십팔명을 절정으로하야 점점 감소를봐서 소화구년도에는 사백이십팔명 작년도에이르러서는 그 일백구십사명으로겨우감되엿다 그러나 이것은 종래의 농민운동(農民運動)의 고조될대에 농조(農組)사건이 대량적으로 검거되든 과도긔를지나서 최근의사상운동은 해외에서 파견되여온 소위 그들이말하는 합법적(合法的)운동에들어가 량보다도 질적으로 자하운동이 전개되여나가는것이 아닌가추측된다 그리고 사상운동종별로 보면 당관계(黨)가 십칠건에 사백구십명 적로(赤勞)가 칠십사건에 일천흥백삼십삼명 학생(學生)관계사건이 이십사건에 삼백팔십사명 긔타 농조(農組) 등이 사백팔건에 이천칠백사십구건으로 무어보담도 농민과 로동자들을목표한 대중적운동이 절대다수로 점하고잇다

至急電話의開通

廿六日에決定發表

全城에二千二百個만分配

소화십일년도의 전화지급개통신청(電話至急開通申請)은 그수효가 전부이마사천명에 달하야 가설에정수의 약십배나 되엿는데 체신국에서는 그분배에 대하야 조사중이든바 이십륙일에 드듸여 다음과가티 결정하야 발표하엿는데 분배총수는 이천이백개이다

분배수 십개이상의 곳만으로도 다음의 삽십개소인데 그가운대에 경성칠백개가 최고로 평양(平壤)일백사십오개가 둘재이며 그다음에는 부산(釜山) 대구(大邱) 청진(淸津) 함흥(咸興)등 순서로되여잇다

▲分配數十個以上地

京城七〇〇 釜山八三 咸興五〇 仁川四七 馬山二四 興南三八 開城四七 晋州二〇 淸津五四 水原一四 海州二七 羅津三一 永登浦四一 沙里院二八 城津一〇 大田一五 平壤一四五 全州一〇 群山一六 鎭南浦四〇 春川一〇 光州三九 新義州三三 延安一三 木浦一九 江陵一四 吉州一五 大邱六八 元山四二 長箭一一

悲觀한妓生의飮毒

이십오일 오후열한시경에 시내 청진정(清進町)이백구십삼번지의이호 한성권번(漢城券番)기생 고영월(高英月)(二?)이가『칼모친』을 만히먹고 자살을하려고 혼수상태에 빠저잇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곳 의전(醫專)병원에 데려다가 급히 치료를하엿는데 생명에는 이상이 업스리라는바 그원인인즉 그가 밋고 사랑하던 남자가 최근 돌보아주지안코 부모와 마음이 맛지안허 가정불화등으로 번민한 때문인듯하다.

世專李世珪氏 醫博論文通過

또 의학박사 한명이 생겻다 조선학계(學界)는 작구 약진하고잇다 이번에 의학박사로 되는 이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약리학(藥理學)조교수 리세규(李世珪)(三?)로 그는 얼마전에 경성제국대학의학부(京城帝大醫學部)교수회에 『방광(膀胱)의 약리학적지견보유』(藥理學的知見補遺)라는 주론문(主論文)외 부론문(副論文)네편을 제출하엿든바이십오일에 그교수회에서 통과되여 문부성(文部省)으로 학위허가신청의 수속을 하엿다한다 리세규씨는 일즉이 경성공립제일고등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소화오년에 경성제국대학의학부를 졸업하고대택(大澤)박사미테서 오륙년동안이나 약리학을 연구하다가 작년부터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조교수로 취임하야 열심으로연구하여오든 소장학도라한다 (사진은 리세규씨)

躍進의淸州商業校 新築校舍에移轉

빗나는金永根氏의壯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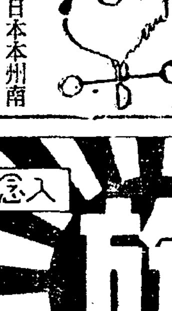
【淸州】 적수공권으로 루거만의 재산을모아 립지전중의 인물이 된 청주 김원근(金元根)씨의아우 현재원산에서 해산물 무역상을 경영하고잇는 김영근(金永根)씨가 사재 이십삼만원을희사하야 설립한 갑종정도의 재단법인 청주상업학교의 신축공사는 긔보와가티 완성되여 지난이십오일에 신축교사로 이전하얏는데 동신축교사는 장래십학급을 경영할수잇도록하얏스므로 명년부터는 이학년식의신입생을 모집하게될터이라한다

東光醫院 X光線新設 無料로奉仕

부내관철정(貫鐵町)대광교(大廣橋)부근에잇는 동광의원(東光醫院)에서는 개업이래 일반환자에게 실비로 친절히 봉사하여 오든중이엇섯는데 이번에 막대한경비를드려 『엑스광선과』(X光線科)를 새로설치하고 그신설을계기로 무료로 엑스광선을이용하여 건강진단을하여주기로되엇는데 일반폐결핵환자와 불건강한사람에게는다시업는 조흔기회가될것이다(광고)

貫鐵町六六番地・大廣橋附近 東光醫院 電話光(二)四〇番

天氣予報



概況 高氣壓은 日本本州南東方海上에 퍼지고잇스며 中國山東省에도 氣壓이 조금놉다 低氣壓은 中國揚子江流域에잇서 徐徐히 東進하고잇다 滿洲는 大概日氣가 良好하며 朝鮮及日本內地는 호리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호리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호리다

昨日最高 二八度八 / 昨日最低 一七度八 / 今朝最低 二〇度一 / 今日正午 二九度一

運動競技

對九大蹴球戰에 城大軍連敗

九州大學對京城大學第八回定期蹴球戰은 二十三、四兩日間 九大醫學部運動場에서 第二回戰을行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京城大學軍이 連敗하엿다 그리하야 京城大學은 六勝一無勝負 九州大軍은 이번定期戰에겨우連敗를免하엿다

九大 4 (2……2 / 2……1) 3 城大

九大 3 (1……0 / 2……0) 0 城大

全日本專門野球 京城醫專이參加

來七月二十二日부터 東京戶塚球場에서開催되는 全日本實業專門學校野球大會西部豫選에朝鮮代表로京城醫學專門學校野球部가 參加케되여 七月十日 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 同十二日御到着, 同十五日부터 二十日까지試合에 參加할豫定이다

次期올림픽은 芬蘭國이有望

"라伯視察談"

【伯林二十四日發同盟】 『라츠르』伯은 芬蘭헬싱키의 次期올림픽大會開催에關한 모든準備를視察하고 二十四日伯林에 到着한後 英國의 올림픽大會招致運動에對하야 다음과가티말한바잇섯다 『一九四〇年의 올림픽開催에關하야 東京、倫敦、『헬싱키』의 三國이 立候補가되여 世界의 視線을 集中하고잇다 自己自身으로서는 公正한 立場에서 活動할수밧게업는데 三國中에 어느곳을 選擇할것은 아즉말할수업다 『헬싱키』의設備를視察하고도라왓는데 設備에對하야서는 大概 滿足하다고생각한다 倫敦이 立候補하엿다고 決斷코東京開催의機會가 減殺되엿다고는 미들수업다 도리혀 하나보다 둘을相對하는것이技術上에더욱有利하다고밋는다

伯林올림픽 參加六千名

【伯林二十三日發】 伯林올림픽大會의 參加申請은 二十二日마감까지 二十三種目全部에 參加한나라는 主催側인 獨逸과米國、匈牙利의三國으로 參加人員은四十九個國의 約六千人이라는 空前의盛況을 이루고잇다 二十三日濠洲選手團도 伯林에到着하야 올림픽氣分은 더욱濃厚하여젓다

▲競技=(二十三種目) 陸上競技(男女) 重量擧(力技) 레스링 拳鬪、劍術(男女)射擊、近代五種、體操(男女) 馬術、自轉車、水上競技(男女)漕艇、『카누―』『핸드볼』蹴球、『하키―』…

…질、日本、諾威、西班牙 (十三種目)墨西哥、土耳其 (十二種目) 丁抹(十一種目) 埃及、『불가리아』智利 中華民國、『룩셈부르크』(九種目)『그린랜드』濠洲、『에스토니아』『베루』、『루―마니아』(八種目)、印度、葡萄牙 (七種目)『우르과이』比律賓、巴奈馬(六種目)『아이스랜드』『골럼비아』、『아프가니스탄』『파라과이』、『마르타』(二種目)『모나코』、『짜마이카』『빠―뮤다』『아이지』、『코스다리카』(一種目)

英國올림픽招致 英紙모다冷靜

倫敦市의 올림픽招致問題가 對外的으로 重大한影響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倫敦市內에잇는各紙는 意外로 冷靜한態度를 가지고잇서 多數의 發行部數를가지고잇는『데이리―・엑스프레스』紙와『데이리―・메일』紙 또는『데이리―・미라―』紙等은 모다이招致問題에는 無關心의 態度로서 아무런記事도 揭載하지안코잇다 그리고 成紀載한것은 不過六五行을 處置하엿슬뿐이다

運動界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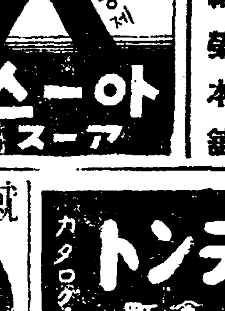
▲金明坤君(明大拳鬪部員)이번明大在學朝鮮拳鬪選手의鄕土訪問交涉次 二十四日入京 人事次本社來訪

定罪와宣告

얼마 전에 한 신문을 보니 어떤 살인죄 심판이 끗나는 결과를 기재한것이 잇섯다 예심판사가 얼마 동안 심사한 후에 유죄하다는 조안을 보고하엿다 재판관이 나와서 말하기를 『제 죄인은 아모리 사하여 보아도 유죄로 결정할수 박게 업습니다』하엿다 그러면 정죄한것이 나라 법률이 마땅히 죽어야 하겟다고 정죄함이라 곳 그에게 당한 선고이다 그때 부려는 그가 자기 생명을 들어 그의 법률을 따라 죄에 해당한 갑을 내여야 하게되엿다 그런즉 그는 아직 사형집행이 아니 되엿스나 발서 죽은것이나 다름 업다 과연 당신도 아직 구원함을 밧지 못한것이면 그 사람과 다름이 업시 정죄함을 밧아잇는것이다 재판관의 선고가 그 사람의 결국을 확정함과 가티 하나님의 선고가 당신의 운명을 정할것이다 한 말로 밀하면 당신은 정죄함을 밧아 방은것이니 『밋지 안는 사람은 발서 죄를 정하엿다』한것이다 당신이 밋지안흐면 피할수 업겟스나 죄는 그대로 정할것이니 사람이 맛지 아니한다고 선고를 나리지 못할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몸으시기를 『네가 어떠케 피하려느냐』하신다 만일 당신이 정죄빗은 사람의 그림을 보면 필통 무서워할것이나 그 그림은 곳 당신의 그림인줄 알것이다

이 살인자가 선고를 한번 당한 후에는 아모 다른 방법으로 용서함을 방을수 업슬것이오 다만 법률의 진행 순서 대로 나갈뿐이니 왕의 특사가 아니면 능히 그 진행을 정지시킬수 업슬것이다 그런고로 누구던지 회개하고 구원을 엇지 못한자는 곳 사망의 선고 아래 금고되자이니 당신 주권자되신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수가 업슬것이다 이는 곳 우리가 당신에게 가저온 소식이니 『예수・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당신에게 드리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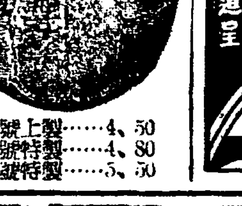
好職業 不景氣의失敗는업다 利益만코本業副業으로男女누구나 遠近불問 自宅에서할수잇는職業 申込하라。年中無休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福榮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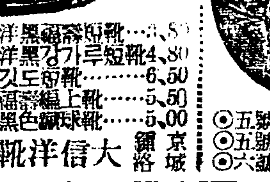
(米)朝報案內 巢礎 種蜂、王蜂、養成分讓、蜂具巢礎製造販賣。案內書進呈 京城府竹添町二丁目一八四ノ三 豐國養蜂場

恩給 五年分以上最低利長期立替看債借換歡迎乞照會 京城中學町一七 女師前 金星商會

蹴球 實費提供 (二個年以上保險附)



◉五號上製……4、50 ◉五號特製……4、80 ◉六號特製……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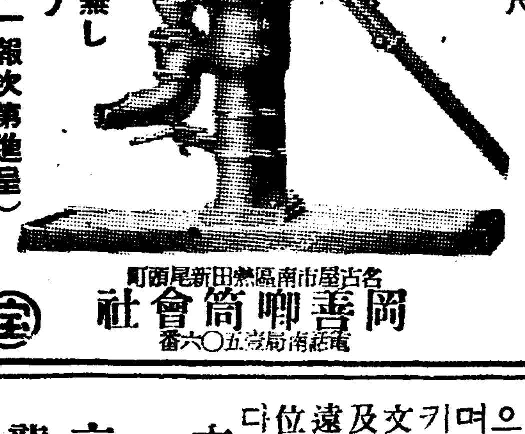


◉西洋黑福蘇短靴……5、50 ◉西洋黑강가루短靴……4、80 ◉黑깃도短靴……6、50 ◉黑福蘇編上靴……5、50 ◉白黑色蹴球靴……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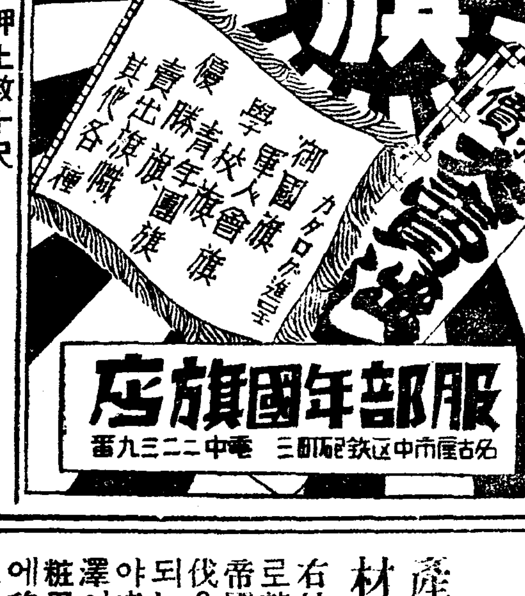
京城鐘路 大信洋靴店 カタログ進呈

山下テント 金山大倉町 電話三四四番 カタログ進呈

特許 流泉ポンプ 押上數十尺 運轉輕快 耐久試驗 滿點 グランド無し 昇進ポンプ (カタログ一報次第進呈)



名古屋市南區熱田新尾頭町 岡善喞筒會社 電話南局壹五〇六番



斯界의權威 特許ガソリンランプ 特許石油下向ランプ

海軍工廠遞信局指定納入 合名會社 柴田商店 名古屋市中區古澤町 電話南局二一三一番 振替名古屋二一三一番 受信略電ナゴヤガスヤ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朝鮮赤松原木 廉價大賣出

産地―江原道高城郡東京帝國大學演習林

材長 一間(七尺) 一間半(十尺五寸) 二間(十四尺) 二間半(十五尺以上)

右材木의由來는李朝五百年以來皇定封山으로禁養해오던곳인데自今三十年前부터東京帝國大學農學部演習林으로指定이된以後採伐을保護해온關係로樹齡은平均三百年이나되는松木으로柾目이緻密하고成長이良好하야赤味가多量하기때문에腐敗脂堪은勿論光澤이佳良함으로細工用建築用材建具用材化粧用材土木用材로三十餘年前부터日本內地에移出되고잇엇으나今年부터는數量이적음으로鮮內願賈者諸位께廉價로供給코저하오며現今約三百萬才을高城驛頭에着着上陸시키는途中에잇아오이勿失此機하시고多數注文하여주심을敬要하나이다注文規定은原木及製材品을不問하고迅速注文에酬應하오며遠處로부터의注文은적어도壹貨車以上을單位로하고代金의二割을契約金으로밧겟읍니다

本店 江原道高城驛前 善益木材商會 同 協和製材所 振替口座京城二一三三

京城販賣所 京城府孝悌町二九七番地 電光二六一六番

龍山販賣所 龍山驛前(漢江通一一五番) 電話龍山五一一二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勤人學生兼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カレンダー製造元 杉本商店京城支店

諸賢의便利를드리기爲하야小賣部도設置하옵고貴下게訪問하야良好品을廉價로提供코저하오니例年보다더욱愛護하야주심을千萬伏望하나이다

出張員 中川藤次郎 朴敬達 黃道永 李明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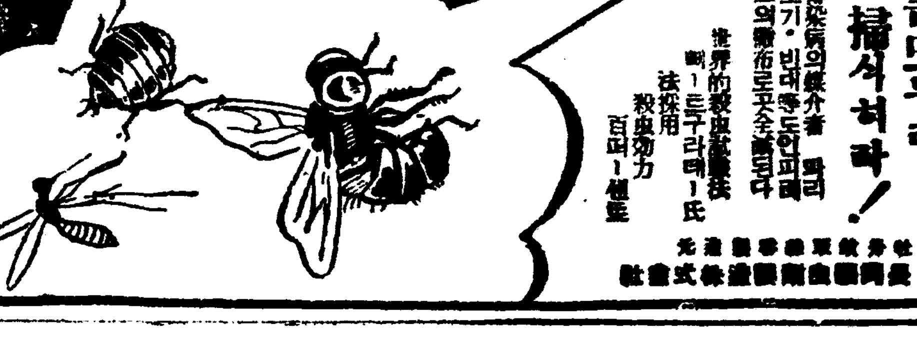
杉本商店京城支店長 白

支店 京城府西小門町五四 電光一三五三

本店 大阪市北區菅原町 電堀川五〇六一 五〇六二

『蔘茸トニク』 에헴! 어듸散步나할가 한잔으로元氣는旺盛

最強力殺蟲劑 特許 イーピンレス (蠅必立死)



여름의强敵 害虫무리 一掃식혀라! 傳染病의媒介者 빠리 모기・빈대等도한꺼번에 스의撒布로完全驅除된다 世界的殺蟲效驗保證 빠―트우라데―氏 法發明 殺蟲効力 百파―센트

小學教育の爲に

掛圖寄贈引換券을添付

小

學校에서 必要한 敎授用掛圖가 良好한것이 적다. 잇다하더라도 費用關係로 完備되지 안흔 現狀에 鑑하야, 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에서는, 多少間이라도 小學敎育에 도음이 되는 事業을 考慮하든中, 今回 全國小學敎育界의 權威들로된, 敎育資料會의 編纂에 依한, 優秀한 敎育掛圖 一百萬枚를 製作하야, わかもと需要家各位의 協力을 願하야 全國小學校에 寄贈하여 드리기로 되엿다. 여러분께서 이 事業의 趣旨에 贊同하여, 別項記載의 掛圖寄贈引換券을 有效히 活用하시기를 願하는 바이다。

寄贈方法

○『わかもと』定價一圓六十錢以上의 分에 『小學敎育掛圖寄贈引換券』이 封入되야 잇습니다。

○『わかもと』를 求하시는 분은 右의 券을 必히 小學校에 寄附하기를 願합니다。

○小學校에서는 右券을 모이어서 東京市芝公園十一號地 敎育資料會에 보내시라

○敎育資料會에서는 規定의 枚數에 應하야 指定의 掛圖를 送附하여 드립니다

○掛圖의 形은 新聞紙約二頁大이며 學課의 進行에 應하야 每月約二十種을 發行, 어떠거나 專門諸家의 揮毫로된 東都一流印刷會社의 精巧技術에 依한것입니다

○掛圖의 細目等은 小學校에서 照會次第 通知하여 드립니다

胃腸榮養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一劑로써 이런 綜合效果

全機能에 미치는 細胞賦活作用

對症療法以外

『わかもと』는 在來의 化學藥劑에 依한 對症療法에 對하야 生物製劑에 依한 綜合療法의 領域을 開拓한 特殊헤ㅣ뮈菌劑이다。病을 여러가지 症候에 應하야, 그에 따루는 여러가지 病狀에 適當한 藥劑를 給與하야 治療한다 ― 發熱에는 解熱劑를, 消化不良에는 消化劑를, 便秘에는 下劑를 ― 라고하는 對症療法의 觀念으로써는 同一藥劑로 各科의 病에 對하야 모든 治療效果를 發揮하는 本劑의 性能은 了解할수 업는 것이다。그런데 化學藥劑와 對症療法의 規範을 脫한 生物製劑 ― 綜合療法의 獨自的 領域이 잇슴으로써, 그 藥理는 必然的으로 前者와는 別箇의 立場에서 解釋하지안어서는 안된다

뻬타민B以上

『わかもと』는 그 本態인 特殊헤ㅣ뮈菌의 性能에 基因한, 細胞賦活作用을 樞軸으로 한다。적어도 病은 症狀이야말로 千差萬別이 잇지만, 어느거나 障碍된 器官을 組織하는 細胞의 機能의 衰退, 又는 異常에 基因이 되는것은, 모든 病勢의 共通되는 바이다。細胞賦活作用이란것은, 衰弱細胞의 生命인 原形質에 活力을 給與하며, 그 機能을 活潑케하며, 衰弱을 恢復하야, 異常을 正常으로 還元시키는 作用이며, 『わかもと』가 一劑로서 各科의 治療에 널니 奏效되는 것은, 이 細胞賦活作用에 依한것이다。

世上에서 혹은 헤ㅣ뮈菌劑의 主要한 效果를 뻬타민B에 置重히 生覺하지만, 『わかもと』의 綜合治療劑로서의 基礎가 되는 細胞賦活作用은, 오직 뻬타민B 等 一二의 榮養素의 效果에만 돌니는 것은 너무도 過大한 것이다。참으로 優秀한 藥用헤ㅣ뮈菌劑는 뻬타민B 以外에 더욱 數多한 有效成分 ― 稀少榮養素, 호르몬性物質, 엔침等의 複雜한 組織으로부터 된것을 이처서는 안된다。

粉末及錠劑

數百種中의有效菌

헤ㅣ뮈菌이란것은 子囊菌類에 屬한 一群의 微生物에 給與한 總括的屬名이며, 그中 有效、無效、有害의 數百種의 菌을 包含한 것은, 적어도 딴 一群을 形成한 細菌中 고레라, 치부스 等의 病原菌을 비롯하야, 有害無害 數千百種의 細菌을 包含한 거와 同樣의 것이다。

『わかもと』는 이런 헤ㅣ뮈菌中에서 가장 醫藥으로써 價値잇는 特殊의 優秀한 菌을 選擇하야 全有效成分을 破壞치 안토록 特許方法에 依하야 製劑한 것으로써 菌種의 優秀와 製法의 完璧을 期한 最高의 硏究가 結晶되야 잇다。單히 헤ㅣ뮈菌劑 名稱으로써, 그成分과 效果에 大差업다고 밋는 것은 큰잘못이다。

藥價低廉

粉末九〇瓦・錠劑三〇〇錠 **一圓六十錢**

三百錠은 大人에 廿五日分・十歲前後의 兒童에는 約四十日量・五歲前後에는 五十日量・三歲前後에는 六十日量에 適當。

株式會社 わかもと本舖 榮養と育兒の會
東京市芝公園大門際・振替東京一七〇〇〇番・電話芝代表一七一五番

家庭

땀 몸시 나는 분은 이러케 해 봅시요
남 아페 나서도 마음이 노이게 냄새 제하는 약 몃가지

여름도 내일모레입니다。더위가 이제부터 한철로 들어섯니다。전신에서 땀은 철철 흘르지 안습니까? 얼굴이며 손발이며 몸이며 때가 끼가도 쉬지 안습니까? 녀름에는 깨끗하고 정갈스러워야만 시원하게 되는데 땀과 때로 냄새를 피워서야 남도 남이요 자긔부터도 불쾌스러운·노릇입니다。어떠케 해서든지 원 몸을 자조 씻고 닥고 해서 그 냄새가 나지 안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자조 씻는다고만 모든 냄새가 업서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다소간 약품을 쓰지 안흐면 좀처럼 그런 냄새를 가시게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발냄새

누구나 발냄새가 나기 쉬지만은 그중에도 하로 종일구두를 벗지 안코 안젓는 월급쟁이들의 발냄새가 더욱이 심합니다。본래틀 발울업들이나 손처럼 매일마다 씻지 안는 버릇이 잇기때문으로 냄새가심해지는 것이지만은 설사그러케 씻드라도 냄새를 아조 안나게 하는 수는 업습니다。(가루약)활석말(滑石末)백그람에 대하야 살틸산 이그람 전분(澱粉)십그람을 석거서 발끄락사이와 발바닥에 발릅니다。

(물약) 주정(酒精)오십그람에 대하야 물사십그람 좋마린오그람 리스링삼그람을 석거서 약을 맨든뒤 비누로 말장하게 씻고서 붓으로 바릅니다 그런데 구두의 가죽이란 습기를 빨아드리기가쉬운데 그것이 고약한 냄새를 배게합니다。구두는 어대까지 습긔가 업시하는동시 속창을자조 갈아 끼워야만 합니다。

겨드랑내

이냄새를 피우는 분은 어느때고 일반이지만은 그여시녀름에는 더한층 심하야 집니다。이냄새는 거의 치료불가능으로 알치만흔 발긋이 그럴것도 아닙니다。

(수술)근본치료는 수술입니다 한편짝에 십오원씩두편짝에 삼십원쯤비용이 든답니다。

(엑스광선치료)수술 다음으로 엑스광선치료도 조흐나 전치까지 약반년이 걸립니다。비용으로 보아서 차라리 수술하는이보담 메곱절비쌉니다

(약치료)중조(重曹)오그람 활석말(滑石末)오그람 구은백반십그람을 석거서 가루약을 맨들어가지고 손까락으로 찍어서 하로에 한두번 내지두세번씩 발릅니다 만일그약에다가 향수를 좀너허서 바른다면 더 훌륭합니다。그러나 어떤은 약바르는 그때뿐입니다。약을 떠끄치는때 곳도로냄새가나게됩니다。

머리냄새

머리도 자조 깜지안는다면 냄새가 납니다。그중에도 깜지 안는 머리에 땀지를 직구가 로것만 더더마다 발라 노흘면 그것은 또 섞어서 냄새가 괴상야릇하게됩니다。그러나 머리는 빨이나 거드랭이와 달려서 열흘에 한번이고 닷새에 한번이고 깜기만 하면 고마입니다。그러고 목덜미 또는 귀뒤가튼데 향수나 찍어 두면 더말할것도 업습니다。

선뜻한물재조

아깃자깃한『모-타보-트』의 재조──비랄진데를 한간에사 십오마일속력으로 달리다가비행기처럼 공중에떳다가、다시 물위에 풍덩떠러저가지고 화살처럼 다라나는재조。어덧켓습니까。오늘밤에도 가슴이선듯할 노릇이지요。

「달팽이아주머니 둘러메신 커-다란 봇다리는 뭐에요」

「우리 막네딸 줄라구 배추떡 한말을 햇단다」

「따님댁이 어디길래」

「한열흘 걸릴까보다。
옥수수낭구잇는 저밧고랑。─」

(글쓴사람 최창선)

童話 잉금님과파리
裵先權

마음씨이상한 임금님이 잇섯습니다

어느날 대궐안 안방에서대신과대장들을 모아노코 잔치를하고 잇는때 파리한마리가 날러와 임금님 머릿박에안젓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듸서 개파리가와 임금님 머리에 안스다니 이런고약한 일이잇단말인가』

하시면서 대단히 화가나섯습니다。

『이중에서 누가 성밧갓테서 파리를 울녀가지고 온게지?』하시고 모여안진 신하들을 두루살펴보앗습니다。

대신과대장들은 서로얼골을 바라볼뿐이오 또얼굴을 붉히고 잇는참인데

제일노픈대신한분이 뜰아플보니 한소년이 풀을뜻고 잇섯습니다

대신은 인제는됏다 생각하고

『임금님 우리는 틀님업시 성밧갓테서 파리한마리도 올려온일은 업고 이파리는 꼭 저기잇는 저애가 거리에서 올려가지고온듯합니다」하고 엿주엇습니다

이말을 드르신 임금님은 그럴듯이 생각하시고 대신을 시켜 얼른그소년을 붓들어 데려왓습니다

『이놈 개파리를 어테서올려와서 나의 머리에 안께햇느냐 이무례한놈아』

임금님은 화가나시어 얼골이불카하신데 뜻박게소년은 무엇을생각하는지 빙긋빙긋하고잇다가

『네 네 그러습니까。임금님 그것은 대단 그럴듯한말슴이올시다』

『무어 파리가 머리에 안는게 엇재서 그럴듯하단 말』

『네 임금왕(王)자에 점을찍어보시요 그럼 구실옥(玉)자가 되지안습니가 지금 파리한마리가 임금님머리우에 안지면 임금님께서 구슬이 되는거와갓지안허요』

세상사람들은 구슬을 보물이라고 노퍼말한답니다」하고 소년이말을하니까 그제서야 님금님은 화가풀리섯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소년에게 상을주어 내보내시려는데 대신들은 웃기만하고 잇섯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신들은 『옹그러면 파리 내머리에안지면 엇대』하고 물으니까 소년은 웃스면서

『그럿습니다 대신머리에안지면 개견(犬)자가 됩니다』대답하고 문밧갓슬 나서도망을 첫습니다

이말을 드르대신들이 대단히노하야 그아이를 당장붓드러다가 옥에가둘작정을햇습니다만 임금님께서

『그만두어라 그만두어 영리한 아이니 용서해주어라』하시어서 대신들은 분하지만 임금님의말슴이라 꿀꺽참고잇슬밧게업섯습니다。

★曆★ 六月二十七日(土) 建甲午五月大(初九日)
庚辰·金·氐·開
●祭祀에宜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家庭日光療法 ❶
城大松井外科 文仁柱

일광은 극히하든동물에 속하는생물 혹은엇더한 특수한것을 제하면 모든생물의 생활에 필요한것입니다。

단지 생활을유지하기에 필요할뿐만안이라 일광선이 여러가지 병에대하야 큰효과를 가지고잇다는것은 태고(太古)로부터 알고잇섯습니다。이것은 고대의 미개시대(未開時代)에는 태양이 만능의신이며 생명과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숭배하야왓슴으로 태양광선에 의하야 질병을치료하고저 하는 관념이 생겨난것 갓습니다。근세에이르러 일광이 과학적으로연구되어왓스며 특히 태양광선중에서 자외선(紫外線)을 발견한후로는 태양광선이 여러가지 질병에 유효하다는사실이 확정되엇습니다。그중에서도 특히 결핵성질병에 효과가 잇다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일광요법을 실행하라면 오래동안을두고 계속하야 실행하지 안흐면 현저한 효과를 어들수업슴으로 대단한 인내(忍耐)가필요합니다。더욱애석히 생각하는것은 병원에가서 비싼치료비를 내면서 인공태양등(人工太陽燈)을 쪼일줄은 알아도 아모런 비용도 들지안흔 태양광선을 가정에서 리용할줄 모르는것입니다。

해빗을쪼이면 얼굴과 살결이 검어지는것이 누구나 다 실허하는점이나 살결이 검어지는것이 광선이 유효하게 작용하얏다는 증거가되는것입니다。엇더한질병으로 고생을 하는이는 그병의치료를위하야는 살결이 조금검어지는것도 참아야 할것이며 향상몸이약한 어린아해들에게는 여러가지 이상야릇한 보약을먹이는것보다 일광욕을 식히는것이 건강의회복과 질병의 예방에대단한 효과가 잇는것입니다。한여름철동안만 일광욕 매일계속한다면 그전에는 감기에 걸리든 아해들이라도 닥처오는겨울날에도 감기를알치안코 튼튼하게지낼수 잇슬것입니다。

의사들이 질병을 치료할제 잘 낫지안는때에 특히 결핵성질병 그밧게 외과적질병으로 오래동안 낫지안흘때에 환부(患部)혹은 전신의 일광욕을 매일계속하면 엇던 약품(藥物)보다도더욱 현저한 효험을볼수가잇는것을 경험하고잇습니다。

다음에 간단한 가정일광욕의 실행방법을 이야기하기전에 먼저 태양광선의 생물학적작용(生物學的作用) 다시 말하면일광을 쪼일때에 생물에 밋치는 영향에대하야 간단히 이야기하겟습니다。

(가) 일광의살균 작용

일광이 세균(細菌)에 대하야 강렬한 살균력(殺菌力)을 가젓다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잇는사실입니다。세균을 배양기(培養器)에 배양한후에。그일부분에 일정한 시간동안 일광을 쪼인다면 배양한세균이 모다 발육치못하고 죽어버리나 그와반대로 배양기를 햇볏해쪼이지안코 어두운곳에다두면 세균은 잘발육합니다。이와가튼 간단한 실험으로서도 일광의살균작용을잘 설명할수가잇습니다。결핵균(結核菌)이라도 햇볏해쪼이면 멧시간후에는 죽어버리는것입니다

(나) 일광이발육에밋치는영향

일광은 동물의발육을 왕호하게합니다。가튼종류의 동물이라도 일광에 잘쪼이게한것은 그발육이 보통대로가나 해빗이조이지안는 어두운곳에서 길느면 그발육이 좇지못하다는 사실도누구나 다 알고잇는바이겟습니다。또 겨울철에는 사흘만에한번식 수염을깍든것이 여름이되면 이틀만에 한번식 깍지안흐면 안될때가잇는것을 주의하야보면알수가잇습니다。이것은 여름철에는 겨울철보다 일광이 강하야 모발(毛髮)의발육을 속하게하기때문입니다。또 침침하고 일광이잘들어오지안는 방안에서만길는유아(乳兒)에 흔히 다리가바르지못하고 곰으러진 구루병(佝僂病)환자를 볼수잇스니 이것은일광선의 부족이 원인되는것입니다。이런때에 그아이를 일광욕을식히면 그병을 치료할수가잇습니다。

長篇小說 옥심이【九】
金廷漢 作 安夕影 畫

수복이는 우릉소리가 금시에 어데로 돌어가버리고 눈만 동글해지며 어머니의 치마자랑을 거머잡는다。축대강이 가른머리 밋까지 진담이 질질 배이고 입가에 코물눈물이 뒤범긴그의 때 무든 옷고름에는 푸석푸석 말은 뻥기가 제손으로 받옥긁품 매달려잇다。

『어서 다 가거라! 나는 문둥이다。다시는 내겨테 오질말어라!』

남편은 화를 못이겨서 두꺼비처럼 배를 볼룩거리며 훌겨본다。

옥심이는 남편이 화를 내는 원인을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그냥 못들은체하고는 수복이만 얼는 업고서 그곳을 나와다。

五

그뒤부터 옥심이는 남편의 방을 가저다주기를 꺼리엇다。아니 저어하엿다。

『제 사내 밥심부림을 실허하는년이 잇나원? 그럼 누굴 가저다 주란 말인가?』

시어머니는 방구석에서 코끗도안내놋코 웅얼거리기만 햇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옥심의 마음을 짐작햇든지 틈만 잇스면 자긔가 가저다주엇다。

만약 옥심이가 가저갈때에는 밥곳이 수복이를 데리고 갓다 그럴때마다 남편은 방문을 열어보지도 안커나 그러치안흐면 옥심이가 돌아서기가 밧브게밥상지를 마당으로 팽개처업것다

그처럼 남편은 저번날 그런일이 잇슨뒤로는 사나와젓다。그리고 마츰내 병에도 낙담이 되엿는지 전날처럼 약도 또박또박 쓰지안핫다。남편의 그가티내던진 태도는 옥심이로하여곰 퍽이나 슬퍼하게도 햇스나 일방으로는 도로혀 그의 흉뚱항한 마음에 딴생각도 북도두어 주게도 하엿다。

옥심이는 다시 신작로 일을하러다니기 시작햇다。물론 이번에는 부역이 아니고 바로돈버리다。

시아버지는 안심치안허서 처음에는 몃번쯤 말려도 보앗지만 며누리의 지극한 청이라 혹그편이 며누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되는 일인가보다 생각하고 나중에는 구태여 가는것을 말리지안햇다。

옥심이는 아침 일즉부터 저녁 늣게까지 만두할멈과 돌자갈을……파다。물론 삭시야 도모지 말도 안되지만 그까진것은 애초부터 문제가 아니엇다。어재도 조앗다。

그리하야 옥심이는 종종 저녁으로 안성장을 따라서 내가를 거닐엇다。미친것처럼 이슬에 치마자락이 젓는 줄도 모르고。물론 만두할멈은 그눈치를 알아채엇지만 알고도 모르는채。

그러나 돌아오는것이 느저질사록 집에서는 옥심이를 점점 의심하엿다。

『필하고 인제와?』

시어머니가 꼬집고 돗드시 물으면、

『만두네 집에 돌렷다 왓서요』

옥심이는 천연스럽게 얼러마친다。

『만두네 집에는 무슨 꿀엇이 그리만허? 무슨 금덩이를 무더두엇나?』

시어머니가 연방 앙칼지게나서면 옥심이는 그만 입을 악물고 새무룩해질 뿐이다。그런담에야 시어머니야 뭐라고 게걸거리든지 그저 신청부가티 제 방에만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다。

시아버지는 원래 천성이 태평이라、며누리가 일속 돌아오면 일속 오는가보다 늣도록안오면 아들의밥이나 가저다줄다름이지 마누라처럼 이것저것파고뭇지안는다。

그러나 세상일 누가 보증하랴! 옥심의 일도 그만 하로저녁에 탄로가 나버렷다。──

그가 역시 안의 뒤를 따라서 냇가를 더듬어 내릴때엿다。공교히 그들의 뒤에 문득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우뚝나섯다。

찬물을 집어쏟는듯이 놀낸 그들은 서로치어다보기가 밧브게 고양이처럼 허리를옹크리고 바위 사이를 날렵하게 빠저 달아낫다。

『예-기 년놈들 어딜가늬? 가만 거긔서서!』

뒤에서 사나운 고함소리가러지고 크다란 돌덩이가 그들의 발아페 벼락치듯떠러진다。

『요-시!』

안은 순간 발을 멈치엇스나 『안돼요 안돼!』하고 옥심이가 꿋꿋이 끄는 바람에 못이기는 듯이 다시 다름질이다。

『년놈들 거긔 못잇겟늬?』

뒤에서는 우악스런 위협소리와 함께 연방 돌덩이가 날라 닥친다。

汗ばむ頃の美容心得

여름은化粧이가장어려운季節입니다。그러치만安心하십시요! 다음方法으로어여쁘고明朗하게마음곳당신을丹粧할수잇습니다!

蒼空보다도新鮮한

땀으르고、脂肪이돋고、여드름부름等으로、참으로여름은살결의受難期이지만、

근심은無用입니다!

레-도구레-무로朝夕으로살결을매만지면、여름의근심은解消되고、蒼空보다도新鮮하고산뜻한젊은살결을자랑할수가이습니다。

レートクレーム

芳草와가티방끗웃는

레-도구레-무의高尙한品質은麗艶한살결을지어내며、近代色에넘치는레-도粉白粉의멕크압푸!! 어여뿌게질밧고、땀과脂肪에도밀니지안코、오래가고、참으로自然美를자아내는丹粧美는、花草와가티生氣잇는健康한個性美가마음곳發揮됩니다。

レート 粉白粉

肌色·濃肌色·オークル·白色 粉各色二五錢 水各色三〇錢

山水와가티淸楚한

近代的表情化粧의어여쁜色彩와品質의好評이藉藉한 레-도연지와 레-도입술연지를! 그리고또한 레-도눈섭묵을그려理想的의멕크압푸가됩니다。薔薇와가티新鮮한健康色은貴女의두빰에저윽히微笑를띄게할것입니다……여름은明朗하게당신의것입니다。

レート 頰紅·口紅·眉墨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江……風을……스……처……면……서……△▲

言語現實에 對한 片感

(三) 딸●아들●스데기●떡等의語源

方鍾鉉

이新造語의 其使用範圍가 적어도 全朝鮮的임에는 또한번 놀나지안흘수업다。

이말을하던中에 한마디 더附加하야 말하고저하는것은 우에와판가튼

【形】式으로 딸(女)이란 말도 論하여보고시픈것이다。이것은 그對立語되는 아들이란말이 近日에와서는 딸이란말과 全然히 別語源을 가지고 出發된것가티 보이나 그러나 그러한것이 아니고 事實은 同源을 가진 말이아닌가하는생각이 두터워지므로서다 조금오래된 古書에는 『아돌』『돌』과가튼式으로 어듸인지 同意의源이 潛在되엇는듯하게 書寫되어잇는것을 우리는잘안다 그러므로 모든事實로 밀우워 아들에對하야 『스달』이나 或은『시돌』이나로 되엇든말이아닌가한다 따라서 日本古語로(日本말辭林에 때를 서도기로 記入된것이 잇는 나만큼) 『スタチ』或은『シトリ』한것이 업는지 퍽궁금하야 이리저리 차저보는中이다。만일 딸이란말이 『서도리』와가튼

【變】이딸을 뵈주다고하면 아∥시∥字는 或時 시집이란語의 시와도 무슨關聯이 엇지나안흔가 하는생각도가질수잇는가하다 그러나 이딸에關하여는 事實의根據가 薄弱하므로 全然 抑說이 될는지도모르겟다

다음으로 이우에 말한것과가튼 그러한 ∥되시옷∥은 果然 그根本音이 어떠하던것이냐하면 그것은 문제가 좀커지는것이나 그러나 여기에서 朝鮮文字인된 시옷에 日本말로는 시 或은스로 音譯發한다고하야 單純히이理由만을 가지고는 硬音되音格이 엇고업다는것을 論斷할아모런根據도업다 그各自의言語에關聯한

【究】明이업시는 다른言語와對立식혀 比較할 그럴勇氣를 가지지못한다 그것은 오직 危險한結果를 가저올뿐이요 다만 헛수고에 不過하는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의말이 그 어느것은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것이지만도 그러치안코 임이 根本이 朝鮮文에서부터 日本말 우에서도 말해온것가티 이들은 式으로 생겨난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말에 되시옷이 日本말로『シ』或은『ス』와가튼 毋音부로 된것은 疑心할것업는일인가한다 왜그런가하면 이즈음 『Stick』을 ステキ로『ink』를 インキ로 들과가티 日本말에서 만히 쓰고잇는것을 보므로서이다 그러나 이와가티 推測을 자로 加한다고하면

【英】語의Stick은 日本말로 ステキ가 되고 朝鮮말로 그만 떡과 近似한 發音을 가지고 오게되지도 몰라 한우수운結論을 엇게될는지도 알수업는일이다

다음으로 내가推定할수잇는것은 이들의말이 發生될可能性을 가지고잇는 그年代일것이다。朝鮮의文字를 보고 그 字音만을 發聲히하고 그實際會話上의 通用音을 들어보지못한 말배우는 사람이 흔히 가질수잇는폐단이라고보게되는點이 여기에 잇스니 따라서 硬音의符號를 表示하는데잇서서 完全한一音을 旣爲具備한 『人』으로서 定하엿다는데에도 그自身缺點이 잇다고 反考를 要하는자리일까한다。이되시옷이란 符號가 全然 人와는 다른글字로 되엇드라고하면 아마도 딸을 スタグ로와가티 【發】音하게되지는 안핫슬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諺文이 世宗二十八年에 創製되엇느니만큼 이들의말이 생기기도 그以後의 일일것이라고 밋는것이지만도 좀더 範圍를 좁히여보면 言語가 交通을 中心하야 생긴것이므로 이것이 壬辰亂前後 二三百年間의產物이 아닌가 推測되며 또 시동이란 말은 至今부터 한 三十年前後하야 朝鮮에 鐵道를 敷設할때에 비로소 그使用範圍를 全朝鮮的으로 넓피게 되지나안흔것인가하는推測을 내리고십다 左右間 그時代에 어떠한 交通으로 因하야 새로운말이 생기고 잇는말이 업서지고하는것을 우리는 잘보고잇는터이다。마치 生을 자랑하는者와도 가티!―完―

漢詩

桐岡考選

綠陰 押鶯

佳作五之五 大阪府 朴仁穆

楊柳絲絲綠滿城
濃陰如水露黃鶯
移洲蕩漾龍紋動
漏地縱橫鳥篆成
村老携簑閒臥睡
路人解帶暫休行
紅爐不到淸凉界
無復窮民熱病生

女流隨筆 裏腐草 (4)

劉如玉

(承前)

「메지네스(實業)」는 「메지노(奔忙)」에서나오는말이라한다。奔忙은 生産이다 生産잇는곳에 平和가온다。못그럽다 두렵다 有閑의有限함이여!衰亡이그자최다。

山中에無曆日!얼마나그閒暇한에복깬말이나 부대낀소리냐。

有閑의唯一한 奉仕는奢侈다 美食이다。彼女와彼氏들은 발서元氣가消耗하엿다。血脈은硬化하고 顔色은蒼白하다。死灰다。慾望도 進取도殺害도 野心도아모것도업다。무슨事業이며 무슨企業이랴 그저寄生이다 他力依存이다。金錢에 女色에。

치사스런일이다。치사는奢侈의隱語다。

굴은다、굴은다、바퀴가굴으고 大地도굴은다 生命한몸이굴으고 파고 돌고 넘치한몸은퍼지고 웃독한몸은웃고 뭉특한몸이부터고──이러케비벼대는 동안에生成이잇고、變化가잇다。

不欲知 不欲爲 不欲變──變할줄모르는것이病이다 彼女여 는그것지하라느냐 생각을잉키엿다 풀렷다 指向이업다。

生命對時間

生命과 財産의 輕重을 比할 바라마는 오히려 財産을 重히녀기고 生命을 輕蔑하는 傾向이잇다。生命을 돈으로 購하는 것부터가 그것이다。돈업시 살수잇나!이말이 얼마나 不愉快한 말이냐。이것은 生命對金錢의 比價다。나는 여기서 다시 生命對時間의 比를 말하지아니 할수업다。

『時間은 金錢이다』──亦是 時間도 돈으로 評價하랴고한다。그런데 宗敎에서 『罪의 갑슨 死亡이라』는 말을한다。罪는 死亡을부른(招)다는뜻이다。强盜는『돈네돈을 내라 不然이면 네生命을 바처라』한다。神은『惡에서 떠나라 永生을 네게주리라』이러케 가르치신다。

×

罪의갑(報償)이 이처럼重함을 이야 누가깨닷지못하랴。그러나人間은 저의罪를 辯護할줄을안다。

『咄嗟之間에、저지른일이라』고。또、甚히追窮하면(혼히女子가)『그때그心理는 當한 내自身이나알지 남이야엇지알랴』고한다。

또、할말이업스면(혼히男子가)『常識으로判斷해보라』고 뱃심을대려든다。

아아、사람이란이러케狡猾하다할의일이다。咄嗟의間──이는一瞬間 一刹那의生命의存在다。그것으로罪를辯護할수잇다면 그야말로狩獵人生이다。人間冒瀆도甚할일이다。

나는罪만흔人生이다。率直히비노니

『나에게죽엄의잔(杯)을주소서』

아니다 이잔이내게關한지 임의오래다。

×

사람들이회가나도술 懺悔도술 잘못하고도술 그저술이다。그러나정작바들잔은바드라고아니한다 저들은죽엄의잔代身에 『카멜』의잔 『샴판』의잔을든다。

배암은 그爬行이曲線運動이나 길을곳게가지못하고 人間은直線運動이나 轉旋緩週의融通性에富하다。더욱이 이轉換性은 그사람의閱歷·人望·財産과正比例하는가싶다。行爲에잇서서 轉換이所謂쌔이다。술적비켜선다는말이다。政治家가 그러하고 敎育家가그러하고 實業家 宗敎家……모두가다이것을 容認하야지라고한다。曲線行動이다。線은線이나 발서圓周式이요 立體的이다。直線은 無限延長을意味하고 立體는 空間의限界를 가르치는말이다。

×

나는어려서 鎭南浦近海에서조긔(石首魚)잡이하는것을 본생각이난다。山덤이가티 밀려온다。麻雀의사위(牌)석는소리가 麻田雀鬢갓다하야서 麻雀이라고한다지만 나는 조긔때 조긔밀려드는소리를 聯想하게한다。

넓은바다에 어듸를못헤엄(泳)배아나련만 오는方向이 一定하다。一定하니만치 그러케 세차게 밀려오다가 그만그물에탁막히고보면 뛴다。그저뛴다 작고뛴다。結局沒死를 當한다。決코進路를 밧구지는 안는다。一師團 二師團 三師團……全軍이 陷沒한다。

沒落시라도 前進、前進、名譽의 戰死를 한다。조고만 人間鬪爭이다。

人間이요 저 조고만 못하나! 實로 살자、解은 甚한 自己欺瞞이다。自己欺瞞이다。彼一時此一時! 아니냐 이것이 彼女들의 自暴自棄를!

裸體의道

아침이다。南山의 叢林은 아직도 朝霧에 싸혀잇다。해뜻는 아침──안개는 꿈자리에서 피여 오르고、山腹은 띄를 띈듯 『베일』을 둘른듯。산(活) 그림이다 造化의 豪放다。어느덧 雲散霧收、秀麗한 姿態만 無心히 솟아잇다。天生麗質은 雖自欺라드니 너를두고한말이냐。

×

紛黛의粧은 一夜의幻이요 衣裳의美는 겨우襤褸나 가리움뿐이니 雲雨가江漢의景이 아님이아니요 霧霞가江漢의勝이 아님이아니나 어느덧 大氣는이를吸收한다。

脂粉도皮膚에 吸收되고 衣裳도 身體에 吸收된다。衣裳의吸收라면 무슨『스타일』이 流行에맛는다든가 獨創性이 豊富하다든가하는 말이아니다。이것은 衣服과身體의調和性을가르치는말이니 『衣服이고흐니까 사람도곱다』는 俗의 表現이 道聞의消息이다。그러나 이와反對로 『天稟이고흐니까 아모런 것을입어도 어울린다』는말은 衣裳의吸收性을 云謂하는말이다

貧困과苦難의作家

고리키ー의生涯와藝術

그의突然한訃報를接하고 (三)

咸大勳

『나쥐니노브고로드』로 발길을 돌렷든그는다시 南으로 南으로 漂泊하여『도ー네』를지나、『小로시아』로갓다가 거기서도 얼마잇지안코『베사라비아』를넘어 『크레미아』沿岸까지 흘러흘러 나려갓다、따스한 南國!黑海의『크레미아』의自然! 그것은『고ー키ー』에게 無限히 보드러운 情緒를 感하게하엿다 그러는동안 그는 크레미아에서 캅호카ー즈의『쿠반』으로가서 이리저리 또放浪하엿다 아름다운 캅호카ー즈의 山川平野와 鬱蒼한大森林은 그에게 生生한느김을주엇다 이리하여

『고ー리키ー』는南部로시아의各地를 거이踏破하엿다 放浪하엿다 이것이後年 作家生活에 도ー다란도움이된것은 말할것도 업다

이러케南露를放浪하든 그는 一八九二年十月에는 치프리스 停車場驛員이 되엿다。그러하여 그는 勤務時間外엔 依然히 人生問題에對하야 또는社會問題에對하야 기픈생각에빠지군하엿다。그런데 거기서그는 第三의敎師를만낫스니 그건 알메니아의 靑年放浪家카루ー슈이君이엇다。그靑年에게 그는 藝術도배누고 大詩人의 作品─古典에對한 解釋을듯게되엿다。或은 꾀스피어의作品을 或은 괴ー테의作品을! 그런中에서도 그는 特히 詩人『바이론』에게 기픈 感動을 어덧다한다。더구나 休日이나 日曜日을 利用해가지고는 그는 自己의 體驗한 가지가지의經歷과 見聞을 글로서보기도하엿다

處女作의誕生

이러다가 그는 最後로 決心을하고 『마카ー르·추ー드라』란作品을 써가지고 치프리스新聞主筆께로 그作品을 보내엿다。그것은 얼마하지안어서 紙上에發表가되엿다 그 反映은 컷다 四方에서 讚美의 소리가 놉핫다 그것이 바로一八九二年이엿다。

이主人公마카ー르은『다니ー르』라는 한兵卒의家庭에서 演出된 悲劇的事件을 作者에게 이야기 하는 老年의 집시의 이름으로서 이主人公의 思想은 當時『고ー리키』를 支配하고 잇든것이엿다 이當時의『고ー리키ー』의 思想은 小市民性과 暴虐과 憂愁와에 對하야 直接生活의 感情과 創造의渴望과 戰鬪의 힘과를 對立하얏다 그리하여 그當時의『고ー리키ー』는 아즉도 自己의周圍에 自己理想을 實生活로實現할 方法手段으로서의 團體組織의 形式도 集團主義의 途程도 發見치를못하엿다 그러나 그는 그處女作發表以後 自信을 어더가지고 카잔에서 發行되는『볼가의使者』記者가 되엿다。그러치만 이記者生活은 收入도적기때문에 如前히 가난한 生活을 계속하엿다。

一八九六年 그는 그의故鄕인『니쥐니·노브고로드』에서開催되는 博覽會의 通信員으로 派遣이되엿다。이때의 通信은 大衆에게 注目되는 讀物로 人氣를 끌엇다。

이러는동안 그는 文壇上의 親友의紹介로當時文豪『카랄렌코』를알게되엿다 『카랄렌코』는 이當時 나쥐니·노브고로드에 잇섯지만『페테르부ー르그』에서 發行되는 大新聞『루스코에·바가ー트스트보(露西亞의富)』의 主筆로잇섯는데 그는 이無名의 放浪靑年에게 大端한 興味를가지고 때때로 文學上의 助言도해주고 또때때로 그를 指導하기에 努力하엿다。이리하여 고ー리키는다시第四의 恩師를만나게되엿다 『카라렌코』는누구보다도 文學上 指導者로努力을 만히하엿다 그리하여『고ー리키ー』는 그다음作品『체르갓슈』를 中央新聞『루스코에·바갓트스드보』에 揭載하게되엿다、이것은 또한好評을 어더翌年인 一八九六年에 繼續的으로『코노바ー롭흐』『마ー르와』等을 發表하게되여 그의名聲은 나날히 노파가게 되엇다 그의文壇의人氣는날로노파지고 評家들은 約束이나 한듯이 그의作品을 稱讚하엿다

一八九八年 그의 作品集이 出版되는자그의 名聲은 더욱 놉하지게되엿다。더구나 그해부터 그는 『人生』이란 雜誌에 主로 執筆하게되엿다。이와가티 그의名聲이 떨치게되자 恒常 그를注目하고 잇든 警察에서는 그해五月 그를 다시檢束하게되엿스나 그것은 그前부터 그가갓고잇는 思想的不穩에서 온것이엿지만 어떠確實한 活動을한 證據가업기때문에 그는다시 放免될수 가잇섯다 그翌年 그는다시最初의長篇『포마·가르데에프』를 쓰고 一九〇〇年에는 第二의長篇『三人』을 썻다。다시그는 社會的으로 再認識이되여 그의 作家的力量은 크게反響되엿다 그러나 다시그는가엽시도檢擧되여『아르자마스』로가게되엿다。

海外短信

死人의心臟을 蘇生키에成功

【모스코發同盟便信】 싸베트聯邦醫學은 近年顯著히 進步되얏는데 最近에 또모스코醫學院敎授 오스틔포우스키氏는 死亡後心臟만을 摘出하야 그것을 蘇生시키기에 成功하얏다

同敎授의 實驗報告에依하건댄 死後約二十餘時間을 經過한兒童의 死屍七十個에 對하야 實驗을行한 結果五十個까지는成功하얏스니 卽아드레나린을包含한營養劑를 가지고 約五時間機能을繼續시킨것이라고한다 이成功에 힘을어든 오스틔포우스키敎授는 死體로부터 心臟을摘出치안코서 蘇生시키려고硏究를시작할터이다

懊惱의詩人 하이네硏究 (十)

徐丙珏

一八四四年七月에 愛妻마틸드를 同伴하고 再次 함부룩을訪問한것은 出版上用務와 叔父의年金補助의確實을期하기爲함이엿다 叔父와의 交涉은成立되엿스나 叔父의 死後 嗣子카ー르、하이네와의 折衝이 惡化하야、約二年間 骨肉鬪爭을하엿다。當時의 하이네의 僅少한 印稅만 가지고는 浪費와 華美를 즐기는 愛妻와의 生活을 維持하고 自身의 病療養을 하기가 不可能하야 叔父의 年金이 絶對로 必要하얏다。從弟카ー르이 一八四七年 巴里에 來遊하얏슬때에 카ー르一族의 承認업시는 그들一家에 關한事는 絶對로쓰지안키를 約束하고 하이네의 年金補助의 承認을 바덧고 하이네의 回想錄에서로 그들 一家에 關한記錄은大部分削除하기를約束하엿다

一一、『獨逸、冬童話』其他 一八四三年秋 함부룩訪問時의 産物로 四十五年에刊行된 諷刺政治詩다。

僉僉한十一月 바람에 나무닙떠러지는 음산하게 호린날 나는 獨逸을訪問하얏다 國境에 到達하자 내가슴속에서 心臟이뛰놀고 눈물이 떠러젓다 獨逸말을듯자 怪常한것을要求한다 心臟에서 피가터저나오는것가튼외에 아모 생각도업다 (第一章)

憧憬하든鄕國獨逸에無限한感激과期待를가지고갓스나 官憲의嚴重한取締를當하야幻滅을늣기고말엇다그當時의 獨逸의政治社會狀態에하이네는滿足치못하고 伯林訪問도當局의壓迫을 忌避하야中止하얏다。全卷에 獨逸 特別히 푸로시아에對한 攻擊과諷刺의毒舌이 充溢되어잇다。

하이네의病이漸漸昂進하야 病院에入院하야 呻吟하면서도 精神的으로는 活動을繼續하얏다。一八四六、七年에 『女神디아나』舞蹈詩『파우스트』四十八年二月에 二月革命이러난 二月革命時에 『二月革命通信』을썻다。

『女神디아나』와『파우스트』는生의 歡樂에對한 切切한 愛着을 가진하이네가 漸次 肉體의不自由와 衰弱하야가는 官能을悲嘆하며 多大한收入을豫期하고 倫敦의어떤劇場의 依賴로 製作한 舞蹈詩이다。『파우스트』와는 反된 꾀ー테의『파우스트』는 變化對로 怪奇한 빼레ー로 變形되엇다。

『流謫의諸神』은 基督敎의 勝利와 그祭壇에서 轉落하야 地上의 惡魔가되어버린 希臘敎、羅馬敎、即異敎의 神의運命을 敍述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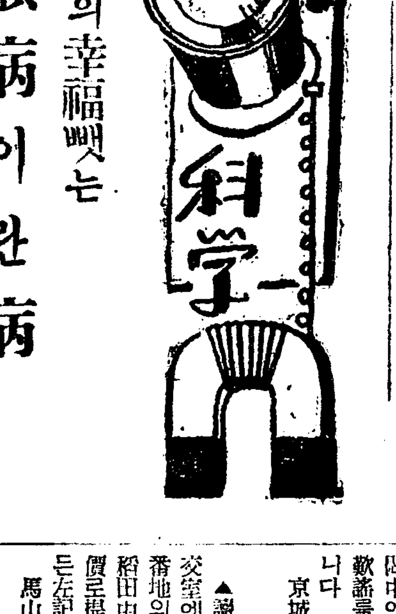
『로만체로』 (Romanzero)

一九四六年부터 一八五六年에 하이네가歿하기까지의 十年間은 病魔와의 悲慘한 苦鬪의 繼續이엇다 肉體는病臥하얏스나 그의精神的彈力은 도리여 高揚되어 衰弱한 眼力과 떨리는 붓으로 或은 口述로 代筆하야 制作한 試篇이 하이네全生涯에잇서서의 大部分이 苦惱 慨歎 嘲笑諷刺로 裝飾되어잇는것은 그의性格의所致라고 看取되나 그의 時代環境의 重大影響을 輕視치못할 것이다。그의 詩集 『노래의冊』『新詩』에 表現된 事象은 斷腸하는 懊惱와 悲觀의 潮流가 無秩序하게 交叉하고 諷刺嘲笑의 波濤가 起伏하야 統一이 업고 散漫하나 『로만체로』의 重要한 特徵은 約五個年間의 繼續的作品이니만치 詩內容에 一貫한 主張과 統一美、均衡美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로만체로』亦是 勝利者의 凱歌는 아니다。生活과 戀愛에 失敗하고 病魔의 侵식을 바든 敗殘兵의 悲歌다。

『로만체로』는 『歷史』批判 헤부라이의 멜로듸』 (Historien, Lamentation, Hebräische Melodien)의 三部로 構成되어 巧妙하게 連絡되어잇다。

人類의幸福빼앗는 癩病이란病 (四)



李鶴松

治療

이病은完全히 治療하는方法은아즉 發見하지못하엿습니다 그러나 이病을 初期에 發見하여 適當한治療를하면 그病이 좀輕하게되거나 또는 停止狀態로病이더重하여지지안케할수잇습니다 古來로 여러가지方法이 잇스나 만히쓰고 또 比較的效果가만흔것은 大楓子油입니다、大楓油를 注射하거나 內服을하면 癩病이 좀治療되는現象을볼수잇습니다、經驗에 依하면 大楓子油를過하게 만히 쓰면 脂肪의不完全燃燒로 여러가지 危險한症狀이이러나서도리여 조치못하나 小量보다는比較的大量을 쓰는것이 좃습니다 大楓子油를 原料로맨든 藥이만습니다 그러나 大楓子油보다 난點을 보기어렵습니다 그 박게여러가지藥劑를쓰나 效果를 보기어렵습니다

이病도 다른病과가티 患者의營養 衛生等을注意하여 良好케하면서 治療를行하면 더욱 조흔效果를봅니다 動物性 藥劑로는 漢方에서 白花蛇、烏蛇、虎膽等을 쓰는것을보나 人體의어느部分을 藥劑로서 보라는것을 볼수가업습니다 勿論 新醫學에서도 그런것은 업습니다 그런데 巷間에는往往히 患者가人體의腦 或은肝가튼것을 藥劑로쓰기爲하여 大膽히도 殘忍한 行爲를 하는것을 보는것은 全혀 患者의 無知한迷信的 信念에서 나오는 蒙昧한行動이다、그病自體만을 生覺할때에는 大端히추한感이 업지안흐나 그病으로因하여 不遇에빠진患者를 볼때에 醫學을하는사람은 勿論 一般社會는 大端히可憐히 生覺하는同時에 그病退治를 속기피바라고잇습니다。

特히癩病을硏究하는여러學者或은臨床家들에게는 더욱 그러한生覺이 큰것이다 癩病을 退治할 目的으로 各國에 癩病學者會가 잇고 國際的으로는 癩豫防과 治療에 對한 硏究가 자못 不斷不休狀態에 잇습니다

이러케 社會와 醫學者가 癩病治療를 爲하여 힘쓰는데도 不拘하고 아무 根據업는 迷信的 觀念에서 人體를 害하는 殘忍한 行動을 敢行하는것은 人道上 잘못은 勿論이요 社會의同情을 맛기어렵게되면 도리혀 癩病患者大衆을 좀더 暗黑한 세계로 引導하는것이 아닐까합니다 이에 癩病患者들은 서로自重하여 正當한 길을밟어서 社會의 同情을 밧는것이 조흘줄 압니다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滄謝進星

讀者社交室

▼全廷麟氏住所를알기願합니다 約十三年前平壤敎會長里監理敎會名譽傳道師로게시다가 沙里院監理敎會로와서 約一年半가량傳道師로視務하신後 다시平壤에서 敎萬里敎會에敎籍을두고(鍾路朴瑞雲氏商店인지는未詳하오나) 某商店에勤務하시든 全廷麟氏의住所를敎示하여주십시오 或移舍갓스면 그住所까지라도 下敎하시면 感謝하겟습니다。
京城府東崇町一三〇ノ五號 金相洽

▲讀者諸氏中 혹 林泰輔著 朝鮮通史 釋尾邦之助著 朝鮮合倂史를 讓渡或은 他書籍과交換하실분이게시거든 社交室을通하야 住所姓名을 알녀주시옵소서 求書生

▲여러분께묻습니다 昨日(六月十五日)月曜日라듸오 放送하신 문文明仙씨 住所를 아시는분이 게시면 未安하오나 社交室을通하야下敎하야주시오면 感謝하겟습니다 市內 南平生

▲詩人「가나다生」에게告합니다 先生이歌謠를만히 가지고게시다 하니 社交室을通하야 알엇습니다。生이平時부터 作曲을試하려햇스나 마땅한歌謠가업서 苦悶中에 잇섯습니다 下記處所로 歌謠를보내주시면 大端고맙겟습니다
京城府嘉會町二〇八 京城高等音樂院 李亨祿

▲讀者社交室御中 二十八日社交室에揭載된 京城府峴底洞四六番地의四九八 어떤분이시여 早稻田中學講義錄全二十五卷을 廉價로提供하야 주실생각이게시거든左記住所로通信切望
馬山府石町一二四番地 朴亨壽

▲生은 某中等學校入學을 目的하야 受驗準備에 熱中이오대 初等學校六學年에 適合한 入學準備用算術、國語、朝鮮語各參考書新古物을 無論하고 近日間買入코저하오니 册을가진분이게시거든 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기를바라나이다
咸北行營市五六〇番地ノ一 姜學林

▲每朝六時부터 八時까지 軟式野球練習試合할분은 左記場所로申請하시요
京城府壽松町八 럭키俱樂部

▲六月三日揭載 慶南金海李兄에게삼함 貴兄께서所持하옵시는 文講義를 小生이購讀하겟사오니 價格을 左記處로 直接通知하야 주시압
京城府嘉會町一一番地ノ六四號 金濟東

新刊紹介

▲ホームライン 七月號 發行所 東京市日本橋區本町一丁目 ホームライン社 振替東京一二一一番 定價十錢

▲獨學通信 第五十一號 發行所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五錢

▲月刊ロシヤ 七月號(內容)特輯座談會=新聞記者に訊くロシヤの眞相 ソヴエート聯邦畫報 特輯=蘇聯邦農業の現狀 等外 其他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三十五錢 送料一錢五厘

傳染病

……夏から秋への衛生」冊子 無代贈呈……

不注意는禁物! 이상타생각되거든 곳アドース錠을

至今이야말로傳染病이流行할季節이다、身體가妙하게 느릿하고食慾이안나고배가 꾸룩꾸룩울고、泄瀉가게속되고、大便은粘液質이며때로는血液이석기고頭痛惡寒發熱될時에는一刻이라도주저하여서는안된다。

그무서운疫痢、赤痢、고레라、膓질부사等은以上과가튼症狀으로부터 始作된다。

이런때에는그냥두지말고、于先アドース錠을服用하라 アドース錠만服用하면膓內에滯積하엿든有害毒素와、나뿐黴菌을、기치지안코吸取하야無害케하야體外에排出하며體內의消除를함으로써、가장安心하고治療할수잇다。

大體여름은黴菌의繁殖이旺盛하야飮食物이腐敗되기쉬우며또한寢冷으로下痢와腹痛을이르키기쉬움으로豫防과治療에는アドース錠을推奬하는바이다。

糖衣錠 二五錠(・三〇) 五〇錠(・五〇) 一二〇錠(一・〇〇) 三五〇錠(二・五〇)
錠劑 一〇〇錠(・六〇) 五〇〇錠(二・〇〇) 一〇〇〇錠(三・八〇)

適應症
疫痢 慢性便秘
赤痢 一般下痢
コレラ 醱酵性下痢
膓チフス 鼓腸
急慢性膓カタル 食餌中毒
胃酸過多症 藥物中毒
胃潰瘍 自家中毒

アドース錠
아도ー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東區道修町・大連市山縣通・奉天加茂町・京城府西小門町

連載野談 (四九)

布囊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이잔만은사양 (九)

김선봉이 여러군사에게 주엄을 경계하고 싸움것을 간절히 일은뒤에 곳 행군하얏다。

밤을 도워 행군을 재촉하야 아아울노가 진을치고잇는 묘향산아래에 당도하얏다。

이때 아아울노는 군사를 여러떼로 난우워 보낸뒤에 보현사에 불을 노와 그절재물만을 빼섯을뿐아니라 그밧게도 여러곳으로 헤터서 재물을 뺏고 부녀를 겁탈하는것으로 거이일을 삼엇다。

김선봉이 묘향산 부근을 접어 들자 아아울노의 불측한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백성이 재물을 빼아끼고 몸을 더럽히며 남부녀대로 살길을 차저 도망하는것을 볼때에 곳 아아울노의 진을 드려처서 선뜻 아아울노의 목을 베혀들고 먼저여려백성에게 사례를 하고시픈생각이 간절하얏다。

그러나 적을 가벼히 볼수업는것을 마음에 또한번 색이고 우선 적당히 진세를 벌니여 압흐로는 아아울노를 삼고 뒤로는 녀진군과 합세하야 도성을 향하고 오는 군사의길을막어 그들을 사로잡기에 편할곳을 차즈려고 친히 말을 타고 다시 진터를 살피기로하얏다。

대저 백두산(白頭山)의 웅장한줄기가 남쪽으로 마천령(摩天嶺)을 바라보고 내려오다가 그중턱에 나르러서 대각봉(大角峰)을 일으키어 서쪽으로 것가지를 내여서 후치령(厚峙嶺)、부전령(赴戰嶺)、황초령(黃草嶺)이되어 함경도를 일우웟고 여긔서 다시 동백(東白)이니 소백(小白)이니하는 백산(白山)의 줄기가 모여진 크나큰 산세가 마치 다섯손가락처럼 퍼지엿다。

그 엄지가락이된것은 백두산으로부터 나려온 대간룡(大幹龍)이오 그둘재가락은 함경도와평안도남쪽의 경계를 지내서 설한산령(雪寒山嶺)아득개령(牙得介嶺)이되어 바로 압록강의 중강진(中江鎭)까지 치켜올나간 북쪽줄기요 그장지가락은 평안도의 중려을 타고 백마산(白馬山)이되어 룡천(龍川)철산(鐵山)으로 뻘어진서쪽 줄기요 무명지는 평안도중엽을 거처 청천강 남편으로 흘러서 서해(西海)쪽으로 강서(江西)룡강(龍岡)까지 이르는 서쪽줄기요색기손가락은 평안도와 함경도 남쪽의 경계를 지으면서 황해도와 강원도로 갈려나려가는 대동강의 남쪽 줄기가되엿다。

그런데 이 다섯가락중에 풍경으로나 항상 서긔를 품어내는듯한 명산이 곳 묘향산이다。

그리고 다시 그 수세(水勢)로써 볼진대 묘향산의 우편으로는 청천강이잇고 좌편으로는 대동강이 흘으게되엇다。

그리고 묘향산을 들어서는어귀에는 바람봉(檜峰)을끼고 꼬불 꼬불 고부러진 수세가 매우 양양한 형세를 일우웟다。

이에 강을 건너 시내의 이끄는대로 들어가면 좌우 산세가 은근하고 편편히 녹하서 뜻잇는 남아가 칼을 돌고 말을 달닐만하게되엇다。

그리고 외사자(外獅子)목을지내면 그윽한 산세가 군사를숨겨둘만하고 내사자(內獅子)목을넘으면 질펀한 끝작이가 또한 그윽하야 적을 유인해 들일만큼되엿다。

김선봉이 이러듯 산세를 다 살핀뒤에 군사한떼를 불너 매가들에 매복하야 황해도와 강원도의 길목을 지키게하고 또 한떼는 불을노흘 채비를 채리어 가마니 내사자목에 숨게하고 또한때는 울상할 채비를 채리어 청천강어구에 숨어잇게하고 또한때는 역시 울상할채비를 주어 대동강가는 어구를 직히게하얏다。

김선봉이 이와가티 사면으로 복병진(伏兵陣)을 침새 아아울노는 곳 선봉장 올탑(兀塔)을 식혀 싸움을 재촉케하얏다。

그러나 김선봉은 진문을 굿게닷고 싸움에 응하지 아니하얏다。

이때 아아울노는 고려군사가 용전하지아니하는것이 필경 무슨 계교속인것을 짐작하얏다。

그래서 아아울노도 역시 진문을 닷고나서지아니하니 이것은 함경도로부터 오는 군사를 기달려 압뒤로써 한꺼번에 칠것을 작정한 까닭이엿다。

그런데 김선봉은 군사중에、제일 나히어리고 얼골이 고흔군사를 뽑아 조용히 무슨말을 일은뒤에 곳 녀자복색을 채리게하고 다른군사에게사람을 불러 또한 무슨 말을 조용히 일넛다。

前波蘭大統領 파데렙스키ー氏 映畵에出演할모양

『폴-랜드』首相으로잇다가 그것을 辭任한以來 거이 舞臺에나서지안코 瑞西에 드러안저은세계적 피아니스트『이구낫잔·파데렙스키ー』가 映畵에出演한다는 소문이퍼저 그實現을 期待하고잇섯든데 製作會社는 新設된『펠·멜』社라고하는 푸로덕순인데 條件으로말하면 十月一日까지 製作할일 撮影所는 倫敦郊外『데남』에잇는『알렉산더-콜다』의 론·도·필름撮影所를 使用할일…等이主要項目이되어잇다 그것은 그러커니와 氏의音樂經歷、風采、特히波瀾의長髮、언제나 나직한 쏘프트칼라ー에 커-다란넥타이를맨것…… 이러한것은 純粹藝術家타입이라로ー맨틱한 映畵에는 가장適當하리라고 定評이되어잇다 【런던發미聯通信】

當年大스타의 轉落記

헐리우드에는 요사이 訴訟事件으로 한참재미잇는 話題를이루고 잇다. 메·웨스트、말레네·듸드리히、죠지·라프트對 파라마운트社의 出演契約을 에워싸고일어나는訴訟도 그하나려니와最近 월리암·에스·하스트對유나이텟드아ー티스트社의係爭도그하나다。

월리암·에스·하스트라면그이름을 이미 이저버린사람도 만켓지만은 西部劇이한참들날리든판에二挺의피스톨로人氣를 독차지하든 한때의名優다。카우뽀이役의 名優인 에스·하스트가 엇재서 이訴訟을이르키지아니치못한가 자못興味를이르킨다。

西部劇의 復活을 도모하려는 유나이텟드社는 一九二五年에 에스·하스트를 六年間契約으로 사저드리엇는데 主演映畵『단부르의드』一篇을 製作하얏슬뿐 그以後는 다시一篇도製作치안하얏다。 에스·하스트는 이미 유나이텟드와 契約이잇는以上 다른곳과도 契約을 할수업서 이러저러 五十萬弗의損害를 입엇다고 同社를 相對로告訴를 提起한것이다。그래서 뉴욕大審院으로부터 勝訴의判決을 어더서 八萬五千弗의賠償金을 바덧다。그는勝訴한뒤 八萬五千弗은 좀 싸지만은 道德的으로 이긴것만도 滿足하다고말하얏다。

그는 今年 六十九歲의 老齡이다。今後 그八萬五千弗을가지고 칼리포니아 牧場에서 누의메리·하스트와한께 餘生을 安閑히 보내리라고 한다。

라듸오

二十六日 (金曜)

◇午後六時三〇分 管絃樂 DK管絃樂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講演 靑年과修養 張志暎
◇同八時 趣味講座 詩歌에나타난녀름의風景 李秉岐
◇同八時三〇分 雅樂 雅山會員 玄琴 李彦根 洋琴 李永世 笙簧 池龍九 奚琴 洪斗燮? 細笛 鄭海時 杖鼓 李壽卿?
◇同九時 博物打令外 一、博物打令 二、黑甁歌 三、金剛山打令 四、新高山打令 五、방아타령 六、양산도 崔貞植 奚琴 李忠善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레코ー드演奏) 管絃樂 交響樂第五番(新世界)……드보르작作曲 第二樂章 라ー르고 第三樂章 스케르쪼 第四樂章 알레그로·콘·포ー코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李冕相
◇同一一時 레코ー드放送(波長變更試驗放送) 指揮 크라이버 伯林國立歌劇場管絃樂團

第一放送 (波長三三三米)

◇同六時〇〇分(大) 이야기 白神久一
◇同六時二五分 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七時三〇分(東) 生活改善講座 三輪田元道
◇同八時(大) 義太夫 竹本小仙
◇八時三〇分(東) 寄席中繼 柳家三語樓外

二十七日 (土曜)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同三時一五分 常識講演 땀은웨나는가 大學病院皮膚科 鄭槿陽
◇同六時三〇分 童謠 一、齊唱 초人불빗 二、獨唱 앙큼스런고양이 三、齊唱달마중 四、獨唱 비오는저녁 五、齊唱 아침 六、조가베 七、獨唱 새야새야 八、齊唱오리떼 忠信學院兒童 伴奏金龍燮

將來의世界

에취·지·웰스의原作을 알렉산더 콜다가映畵化한 론돈필림의大作으로 寫眞은 主演의렌네스·뿌리아스와피알·아길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金章煥
◇同七時 時事解說
◇同八時 職業婦人에게希望을듯는座談會 京城貯金管理所 鄭貞媛 東大門金融組合 金基鳳 京城郵便局電話交換課 崔金順 仁川郵便局電話交換課 金立分 外三人
◇同八時四〇分 獨唱 一、歌劇 마르라中에서 "내너를본後에" 플로트作曲 二、아돌나의로만스 웨ー버作曲 三、海邊의노래 슈ー벨트作曲 四、님은나의安息 슈ー벨트作曲 權泰浩 伴奏 金元福
◇同九時五分 野談 "올흔글入字" 申鼎言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曺鶴鵡 鼓手 丁元燮
◇同自一一時至一二時 레코ー드演奏(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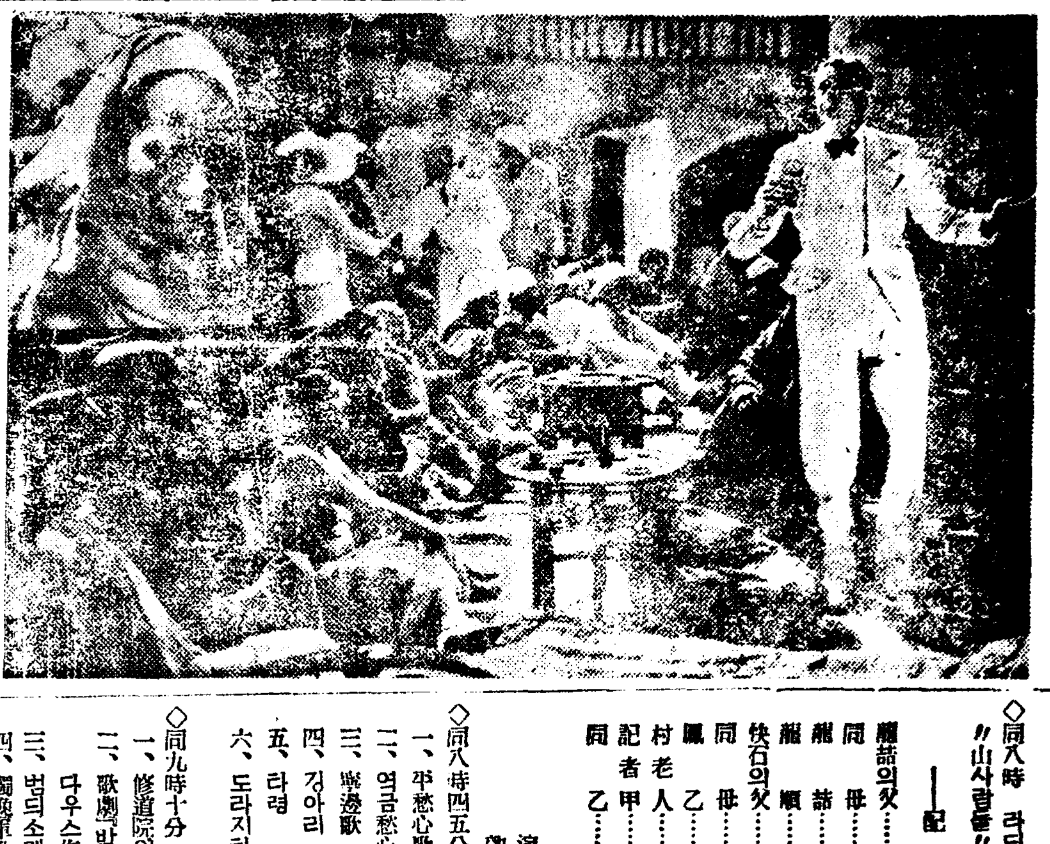
◇午後六時(大) 連續童話劇 BK고도모써클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齋井莊太郎
◇同七時三〇分(大) 獨唱 合唱 城多又兵衛外
◇同八時三〇分(東) 連續라듸오小說 市川段四郎
◇同九時(大) 時事解說 池崎孝忠

二十八日 (日曜)

◇午後零時五〇分 花草四百里外 一、花草四百里 二、六字배기 三、興打令 四、개고리打令 高桂仙 高飛鳶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音樂
◇同六時三〇分 童話劇 『참새學校』一景 ―配役― 참새生徒一……金玉姬 참새生徒二……羅今子 참새生徒三……禹聖才 참새先生……劉桂香 새집는아이……柳河景 京城放送兒童劇研究會 指揮 南·藝 伴奏 劉永愛
◇同六時五五分 心田開發講演 吳基先
◇同八時 라듸오·드라마 "山사람들" 一場 ―李泰俊作― ―配役― 醫師의父……印在淑 同 母……金福鎭 醫師……孟晩植 同 順……吳愛蘭 快石의父……李維 同 母……諸薰海 同 乙……李光來 村老人……全一劍 記者甲……宋在善 同 乙……朴商益 劇藝術研究會 演出 李龍元 効果 効果班
◇同八時四五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엮음愁心歌 三、寧邊歌 四、긴아리 五、타령 六、도라지타령 金春紅
◇同九時十分 치테르獨奏 一、修道院의鐘……카콥베作曲 二、歌劇『박쥐』拔萃曲……슈트라우스作曲 三、벙의소래……링케作曲 四、獨逸軍歌 스칼스키
◇同十時 朝滿交換放送 ―京城으로부터― 短簫及洞簫獨奏 一、短簫獨奏散調 二、洞簫獨奏 새타령 柳東初 杖鼓 趙千洪
◇同十一時 레코ー드音樂(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前九時三〇分 管絃樂과男聲合唱 獨奏 DK管絃樂團
◇午後零時五〇分(東) 滿洲로부터 歌曲 奉天新滿歌曲團
◇同一時二〇分(東) 明治―昭和映畵大會 染井三郎外
◇同二時一五分(東) 라듸오風景
◇同六時(東) 少年音樂講座 井上武士
◇同七時三〇分(東) 歌劇마당 빼리롤라이 永田絃二郎外
◇同八時三〇分(大) 日曜特輯 1스演藝
◇同九時(東) 連續라듸오小說 市川段四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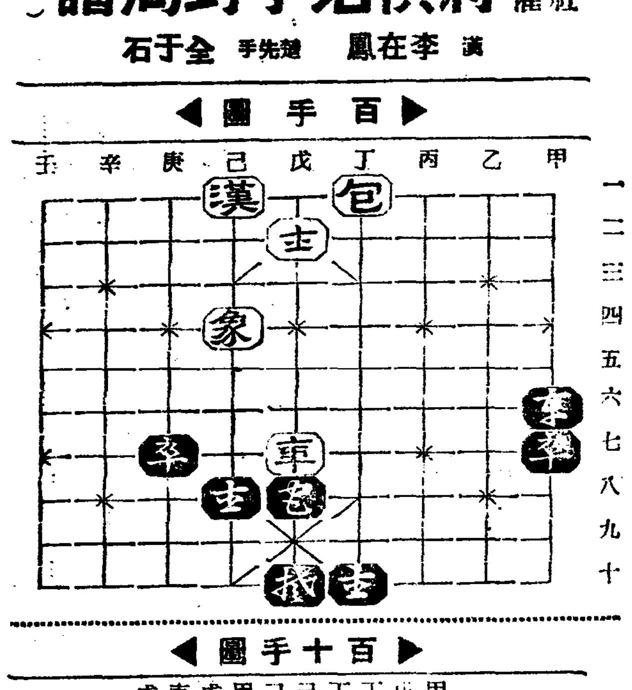


◇『카이로의戰慄』 佛蘭西방다루作品『카길아라·호ー른』은 共演인데 恐怖의魔都、戰慄의거리、埃及에서 이러난 怪奇스런 神秘劇이다 監督은『純白의處女地』『商船테나시티ー』를 맨드러낸 쥬리앙·듀비비氏。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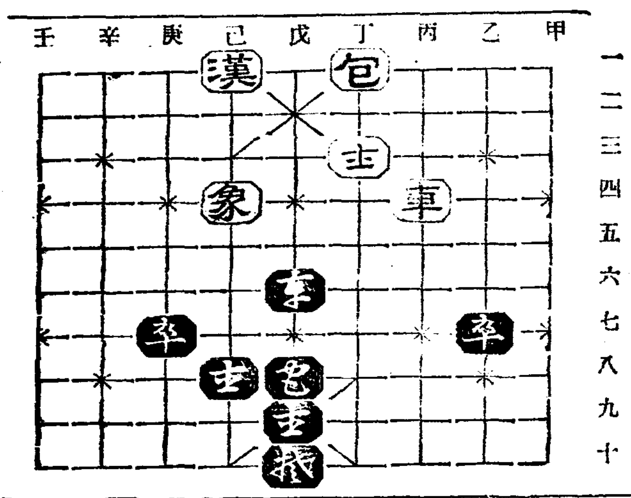
漢 李在鳳 先手 全于石

◀百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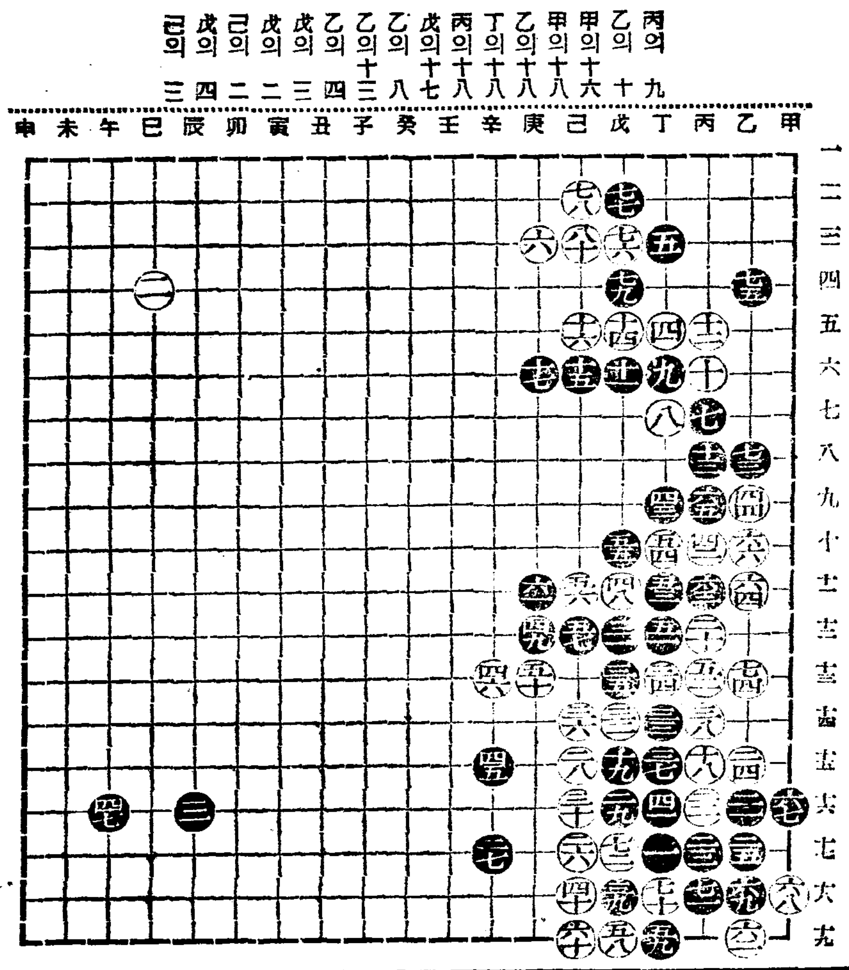
◀百十手圖▶

甲六卒―己六
丁七車―戊四
丁十士―戊九
丁一包―己三
己六卒―庚六
己三包―丁一
甲七車―乙七
戊四車―丙四
庚六卒―戊六
戊三士―丁三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4=

白 丁奎春
黑先 柳鎭河



●九十五 丙의九
○九十六 乙의十
●九十七 甲의十六
○九十八 甲의十八
●九十九 乙의十八
○百 丁의十八
●百一 丙의十八
○百二 戊의十七
●百三 乙의八
○百四 乙의十三
●百五 乙의四
○百六 戊의三
●百七 戊의二
○百八 己의二
●百九 戊의四
○百十 己의三

蔡極文氏評曰 黑이 南邊耳角을 白에게 全轍하고 關鍵東을 東角에 試用함은 時機早晩도잇거니와 些少함을 指摘하노라 黑이 先次壬의 十二로 白包圍東을 衝殺하야 外勢를 獲得하면 中原走鹿이 誰手에잇스믈엇지아러요

世界의名花의 향기三十八種이 잘調和되여잇는!
原料香水 오리지나루香水
여름더위와 피로를이즈시랴면!
상쾌하고 기분을 만들어주는 오리지나루香水에 한함니다!
땀배오르는여름의몸내를업새는 오리지나루香水의한방울은 夏季의社交上절대필요함니다
體溫을리용하야그比類업는조혼향기를늘나게하며 또한쓰시는데 경제가되는實用新案『香氣容器』을꼭한번試用하여주십시요
지금全道各地의販賣所에서 오리지나루香水小甁한개를사주시는분에게 流線型 高尙優美 携帶至便 『香氣容器』를 즉시거저드립니다
販賣店에賣切된때에는오리지나루香水小甁(定價五十錢)의겻봉(空箱)한개와三錢切手한장을封入하시고左記本舖로付送하여주시면곳右記容器를진정하옵나이다
『香氣容器』 實物大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安藤井筒堂 景品部

咸興郵便局員瀆職 小爲替拔取橫領
咸興署에依賴逮捕押來하야 元山署에서嚴重取調

【元山】 근자에 통신사무를 장악하고잇는 우편국소원들의 업무횡령등사건이 각지에서 정종출생하여 세인의이목을 놀내고잇는이때에 원산경찰서에서는 이와가튼종류의 모사실을 요지움 또한 탐지발견하고 지난이십일일에 함흥서(咸興署)에 수배하여 함흥우편국원(咸興郵便局員) 일본내지인 모(某)를 체포압래하여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는 자긔의지우를 리용하야 서류(書類)속에서 소위체(小爲替)등을 빼여내여 다액을횡령소비한사실이 발각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계속하여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시거한개기타 쌀을 훔쳐오는등 실로 십여건의 범행을 한것으로 지난이십삼일 본서로 압송하엿는데 취조에따라 장차여죄가 만흘모양이라한다

奉天市民慰安 大運動會盛況

【奉天】 봉천재주조선인의 주최 본보지국의 후원으로된 봉천체육회의 주최 봉천시민위안대운동회 급 정만씨등개인선수권대회급 녀자추천대회는 지난 이십일일오전 여덟시반부터 당지 국제그라운드에서 첫날의 순서인시민위안대운동회를 대회장 박승훈(朴承薰)씨의 의미심장한 개회사와 선수대표의선서로부터 우승권반환식이잇슨후 니어 경기로드러가 성황리에 마치엇는바 특히 당일에 거행한 현상가장행렬은 일반관중에게 이채를나타내엿고 재이일의 씨름대회 제삼일의녀자추천대회도 역시 열긔명랑한 하늘아래에서 례년에보지 못하든 대성황리에 경과 하엿다는바 각대회의우승자는 각각다음과갓다한다

(陸上競技優勝者)-(萬米마라손)-一着 金國鳳 二着 李正根 三着 獨孤壆 -(씨름)-一등鄭永圭 二등金永大 三등金周榮 四등李應逵 -(競馬)-一등황순이 二등김영현 三등장운명 四등강열선 리선녀 리순옥 망자 리복실 박선부 박귀석

取調中의容疑者 留置場에서脫走
中和署에서各署에手配

【平壤】 이십사일오전아홉시경중화서(中和署)에 중대범죄의혐의로 취조를밧고잇든 동군수산면(水山面)출생로영조(盧永祚)(二七)는 감시경관의틈을엿보다가 류치장에서도주햇스므로 소관중화서에서는 관할각서에 수배를하고 수사중이나 아직체포치못햇다한다

齊玉 三等 李容鎭 ◇리레-一等 靑年會蹴球部 二等 지회團 三等 運轉手團

長淵興風夜學 端午運動盛況

【長淵】 장연읍내 무산아동의유일한 교육긔관인 장연흥풍야학교는 교운이날로 융성하여 재금에 약이백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잇는터인데 무산층의 아동、로동으로써 고로를 만분의 하나라도 잇저주자는 의미에서 동교에서는 지난이십이일 무산운동장에서 대운동회를 개최하엿섯는데 관중이 무려륙천여에달하는 대성황을 일우엇섯는바 장천면려회악대(長川勉勵會樂隊)의 자진출연으로 말미암아 운동회를 더욱 아름다웁게 장식하여엿섯으며 장연유치원원아(園兒)들의 표정유희출연도잇서서 운동회의 한이채를 발하엿다는데 운동회개최를 듯고 일반사회에서는 적지아니한 상품을 긔증하여 실로 당일은 무산아동의 대유쾌일이 되엿섯다한다

富豪賭博團 咸安署서打盡

【咸安】 지난십구일 새벽부터함안경찰서 사법계원과 대산면주재소원 총동원으로 대산면구혜리(九惠里)리응록 김치조 안정수(李應祿 金致祚 安正洙) 평림리(安林里)한선약 우금수 우혜 그 진정오(韓善若 禹金守 禹惠 陳正五)등 일곱사람을 검거하여 엄중취조중 들은바에 의하면 그들은 수개월전부터 계속적으로 도박을하야 수천원의 득실이 잇섯다한다

孤獨한身勢悲觀 七十老翁自殺

【元山】 나히칠십이된 백발로인이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을도모한사실=원산부중청리농원(元山府中淸里農園)에서 파수방로동에 종사하든 권철호(權喆浩)(七二)라는 늙은이는 지난이십오일새벽네시경에 과수원부근벌에서 과수원소독제(消毒劑)를 만히 마시고 자살을 도모하엿는데 그원인을 알어보면 신세를 비관하고 그와가티 자살한것이라한다

平壤府外發展따라 上水道를또擴張
總延長이四千五百米

【平壤】 평양부의 외곽지역의비약적 발전에따라 평양부토목과에서는 금년도이만사천륙백삼십원의 예산으로 수도배급선을연장하고 지금까지 수도의혜택을 밧지못햇든 부민의 편리를도모케하엿는데 선교리(船橋里)방면에는 공사에착수하는일방 매입철관을 주문중으로 이것이완성도 머지안홀것이며 이것이 완성되는대로 서평양방면에서부터 순차로 공사에 착수할예정이다 연장될수도관은 총연장 사천오백삼십미돌로 인흥리(仁興里)이백칠십미、긔림리(箕林里)이백이십오미、경상리(慶上里)삼백미 신양리(新陽里)사백삼십미 서성리(西城里)이백륙십미 암정(岩町)팔백칠십미 선교리(船橋里)오백미 아천리(衙川里)일백구십미 평천리(平川里)일백이십미 관후리(館後里)일백이십미기타일천오백미라한다

學校專門竊盜犯 犯行一一自白

【立石】 지난이일 안주군립석공립보통학교사무실에 어떤괴한이 침입하야 축음긔(蓄音機)、사운드뻐스한개와 동교선생의 책상에서 현금오십전을절취해갓는데 그후 각방면으로 범인을엄탐중 지난이십이일 동군립석면 내동 함의련(咸益璉)의 맛아들 함병우(咸炳瑀)(二一)를 검거취조한결과 사실을 전부자백하는동시에 외에도 범상이 팔법위에 밋처 취조하는 경관을 놀나게하엿는대 전긔범인은 평서학교를 필두로 동면신리소학교(新里小學校)에서 역시 『사운드뻐스』한개와 현금 삼십칠전을 절취햇고 동소 간이보통학교(簡易普通學校)에서도 사진연액(寫眞緣額)두개와 도가튼동리에잇든 홍장의

八千同胞會合 野遊會大盛況

【新京】 신경재주동포야유대회는 예정과가티 단오일 조선민회주최본보지국후원하에 거행하엿든데 실노이날은 근래업든조흔일긔로 서공원에서지타가는 녹음속에팔천여동포가 한자리에모와 점무의 대성황을 이루엇다는바 입상자는 다음과갓다한다

◇脚戲部一一等 全順興 二等玄奎瑞 三等 朴基用 ◇籠球部一等 李燦鎬 二等洪宗玉 三等 鄭愛順 ◇마라손一等 嚴彬 二等 金

等閑視하기쉬운 齒蟲의무서운作戲
大邱府內初等校兒童調査結果 全兒童의五割을侵害

【大邱】 대구부내 각공사립보통학교 생도에게 실시한 신체검사를 한결과 제일 만흔 병이 충치(虫齒)병이라한다。 부내 공사립생도총수 칠천이백칠십사명중에 이 충치병에 걸린 아동이 삼천칠백십칠명이라한다。그중에 일곱살부터 열한살까지가 제일만타고하며 열두살부터는 적고 비교적 생활이 풍난한 아동에게는 적다고한다 의사의 말을듯건데 이 이병은 음식물에 만흔 관계가 잇는데 단것을과도히 먹으면 이병에걸리기쉽다고한다 그럼으로 일반부형들은 단것을너무 만히먹어지안홀것은 물론 반다시 소금으로써 닥는것이제일 량책이라하니 부형들은더욱 주의하여야 될문제라한다

懸賞童謠大會
本社平壤支局後援 三十日白善行記念館에서 勉勵聯合會主催 【本報讀者半額】

【平壤】 긔독교면려회평양련합회(C、E平壤聯合會)에서는 본사평양지국후원미테서 현상동요대회(懸賞童謠大會)를 개최하기로 되여 준비에 방부다 시일은륙월삼십일오후 여덟시삼십분부터 백선행긔념관(白善行記念館)에서 열기로되엿고 입장료(入場料)는 보통 이십전 학생은십전인데 본보독자는 반액(半額)이라한다

발서 참가를신청한 출연자와 종목은 다음과 가타서 소년、소녀들의 아기자기한 그리고 천진란만한 어린이예술의 전당이 전개되여 청중을 깃부게하고도 남음것이잇슬터이다 심판(審判)은 권태호(權泰浩)차선만(車善萬)량씨로 결정되엿다

◇參加申請者와曲名

一、獨唱 西門外少女會員 金惠晶 1『돌아오는배』2『수레(車)』
二、齊唱 蓮花洞主校生徒中 1『새서방새색시』2『생쥐이혼자서』
三、독唱 景昌門外少女讀揚隊員 玄聖德 1『바다가에서』『오동떼떼중』
四、齊唱 西門外少女讀揚隊 1『J·O·D·K』(京城放送局)
五、獨唱 山亭峴主校生徒 李麟淑 1『스므하로밤』
六、齊唱 西門外少年讀揚隊 1『오동떼떼중』
七、獨唱 箕林里主校生徒 黃學根 1、『오줌싸개동싸개』
八、獨唱 蓮花洞主校生徒 白美慶 1『金絲鳥』
九、獨唱 西門外少年會員 金昌國 1『소탄놈도 껏떡·말탄놈도껏떡』
十、齊唱 山亭峴主校生徒中 1『키적은사깨오』
十一、獨唱 西門外少年讀揚隊員 李膽天 1『봄소식』
十二、齊唱 西門外主校生徒中 1『눈나야봄비나린다』
十三、獨唱 西大門外少女讀揚隊員 朴春實 1『고향하늘』『할머니노래』

果物同業組合技手 罪狀暴露로送局
背任業務橫領等으로

【安邊】 함남안변군청(安邊郡廳)안에잇는 안변과물동업조합(安邊果物同業組合)에서는 일반과업자들에게 중간압선판매를위탁바다가지고 파러주는바 동조합기수원봉룡(元鳳龍)(二四)이가이것을 긔화로 일반과업자들에게 그대금을 지불해주지안흘뿐아니라 그러면에는 무슨흐마이가리워잇는듯하야 지난십오일안변경찰서 사법계에서 전긔원봉룡을 인치취조한뒤에 엄중취조한다함은 평과업자들의 그대가를바다가지고서 령수증을 위조하야 천여원의 돈을배임횡령(背任橫領)한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여 폭로되여 배임、업무횡령급사문서위조행사죄로 이십오일에 일건서류와함께 함흥지방법원원산지청검사국에송국되엿다고한다

禁酒斷煙을宣傳

【統營】 통영긔독면려청년회에서는 금주금연의 절제생활선전을 하기위하야 오는이십팔일 오후부터 장로교중심의 모든긔관에서 총동원하야 시위긔행렬과오후 팔시반부터는 대회정 장로교회당에서 리성인(李成仁)목사의 『조선사회의절제생활과 』라는 제목으로서 강연회가잇스리라고한다

第二公普校增築費 寄附金品遝至
벌서九千圓이收合되여

【東萊】 동래제이공립보통학교(東萊第二公普校)증축에 관한것은 이미보도한바이어니와 그후각방면에서 성원과 긔부가답지하야 교동농계(校洞農契)의 삼천오백원을위시하야 수영계(水營契)에서이천원 수안농계(壽安農契)에서 오백원을희사하야 유민일반은 감사함을마지안는동시에 지난 이십사일에는 동래예기권번(東萊藝妓券番)기생일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잇든권반주(株)일백주 시가(時價)삼천원을 동교증축긔성회에 자진희사하엿슴으로 동교긔성회에서는 죽일노인계하엿는데 일반은 이장거에감사하여마지안는다한다

▲三千五百圓 校洞農契 ▲二千圓 水營農契 ▲五百圓 壽安洞農契 ▲三千圓 東萊券番妓生一同

愛慾의彼岸 【34】
李光洙 作 / 金康穆 畫

문임은 혜련의 생각을 들을 겸 웃주 만낫떼 이야기를 꺼내라고

『혜련이。설선생 걱정은 아니해두 괜찬흘것 거래』

하고 입을 열엇다。

이말에 혜련은 비로소 웃주에 관한 사건사생각이 나는것가탓다。그처럼 그의 부모의 갈등은 혜련의 마음을 흔들고 놀리버렷다。

『그래 상회에 잇서?』

하고 혜련이도 마음을 웃주의 문제로 향하엿다。

『그렇 가티 잇는 사람 하나는 내화이 잇서서 어저께부터 못 나온다구 설선생혼자 개서든데』

하고 문임은 웃주가 손님 대할 때엣 태도를 생각해본다。

『언니둥。설선생은 무슨 선생이야。선생이란 말을 그러케 할부루 쓰우?』

하고 빙그레 웃는다。

『그럼 무어라구해?』

하고 문임은 속으로는 혜련의 은주에게 대한 교만에 반항하면서도 붓그러워서 낫출 붉혓다。

『설이라든지、설서방이라든지 그러지』

하고 혜련은 입을 삐죽한다。

『혜련이는 왜 그이라면 그러케 경멸하는 태도를 가저。속으로는 그이를 존경한다면서』

하고 문임은 분개한 생각을 가지면서 참다못하야 정색으로 항의를 하엿다。

혜련은 잠깐 새뚝하는듯 하엿다。혜련은 그러케 마음이 얇전하면서도 사람을 나추 보는 거만한 버릇이 잇섯다。아마 그 아버지 검장로의 버릇을 닮은 것이다。이러케 문임은 생각한다。혜련의 그 거만한 마음과 태도가 혜련에게 일종의 끄는 힘을 주는것은 사실이엇다。누구든지 다 눈에 차지아니한듯한 태도는 도가 넘지아니하면 일종의 미다。누구에게나 아첨하는듯한 헤버러진 태도보다는 조촐하고 쌀쌀한 맛을 준다。혜련은 조촐하고 쌀쌀한 외양을 가진 게집애엇다。

그러나 그것이 조곰 지나치면 아니꼽고 건방진데 흘러버리고만다。혜련은 은주의 말이 날 때에는 이러한 병이 보엿다。누구에게나 상글상글하고 누구에게나 호의를 가지는 문임의 생각에는 혜련의 세미는 이따끔 넘어 차볍하고 깔끔깔끔하엿다。면도스날 모양으로 부어지는줄도 모르게 부어질것도 가탓다。

그러나 혜련은 반성하는 힘을 가지고 나오기를 이저버리지아니한 드믄 여자중에 하나엿다。이 반성이야말로 영혼을 지옥의 불스구렁이에서 건저내이는 하나님의 손이다。

『언니 내가 잘못이오』

하고 혜련은 생득해던 표정을늑히고 수수의 표정을 보이면서、

『언니 말슴이 올하。내가 그이를 속으로는 존경하면서도멸시하는 버릇이 잇서요 그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온버릇인가바』

하고 제가 어렵을 때에 어머니가 가끔

『에미애비 죽은 청승마즌 자식』

『거지자식』

하고 무슨 실수가 잇스면 은주를 두고 말하는것을 듯던것을 긔억한다。그때에 혜련은녹나는저런 청승마즌 거지자식과는 다른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일 은주가 제말을 잘 들어주지안니하면은 심히 경멸하는 생각으로 눈을 흘기던 일을 생각한다。그러나 그런 말을 하여서 어머니의 영예를 손상하기는참아못할 일이엇다。또사실상 지금은 어머니도 그때보다 도덕적으로 훨신 노픈 사람이 되기도 하엿다。

『예수를 밋는 내가』

하고 혜련은 은주 멸시하던 일이 부끄러웟다。

『언니。내 다시는 그이를 멸시하지아니하께요。언니。내가어리석어서 그래。내가 무엇이엿 그이가 무엇이 나만 못하기에。언니。내 다시는 그런 생각아니먹을께 용서해요 언니』

하고 혜련은 울룩하엿다。

혜련의 이 말을 들을 때에 문임은 매우 깃벗다。

『용서는』

하고 문임은 혜련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서로 잘못하는것을 보면 바로 충고하자구 그리지안핫서? 그러니깐 혜련이두 내말을 고깝데 듯지말어요』

하고 혜련의 빰에 입을 마초앗다。

夏のお料理に

勸告할수잇는理由

(1)마루낑醬油는韓니-루 아라닝及치로진等의殺菌的效力을가진成分을含有하고잇쓰므로퍽이나衛生的입니다、
(2)疲勞를恢復식히는炭水化物、에네루가-의根源、아미노酸窒素物質、삐타민A·B·C等의榮養素를만히含有하고잇습니다、
(3)風光明媚한國立公園『瀨戶內海』의四時溫暖한風土와、名山『寒霞溪』의岩層의깁흔속으로부터솟서나오는淸冽한물로써만들기때문에純粹한醬油特有한香味를가지고잇습니다、

醬油가 조코나진것은

따뜻한밥에醬油를조곰처서밥김과함께맛호며잡수시여주시요、元來밥과갓치데리케트한、또는東洋人에어울이는맛을가진것은드업기때문에、납분醬油에는甘草、防腐劑等의混合物其他스루른醸造法으로되여이상한맛을가지고잇는故로바로엽니다

マルキン醬油

登錄商標

純麻特製 東洋苧布 동양저포

製造元 東洋麻絲紡績株式會社 京城出張所

朝鮮總代理店 三井物産株式會社 京城支店

京城販賣店 錦成商會 廣澤商會 壽南商會 金熙俊 德昌號 裕豐綿 廣昌商會 東順德 竹下商店 (가나다順)

注意
近日綿絲或은品劣한原料로東洋苧布를模倣한類似品이만이잇사오니特히商標에注意하서옵

經濟解說 "金融界前途" 公債賣止解除?

日本內地의 金融은 日本銀行의公債賣止라는 戒嚴令下에 잇슨다 平穩狀態로 例年가트면 上半期末 또는 生絲資金의出廻等 繁忙期가 展開되야 緊張케될것임을不拘하고 三四月末보다도 順調로 推移하다 그러나 事業會社의配當資金需要와 生絲資金의出廻로 依資日步等은 受日步九厘前後、良擔保前發行高로 十五六億圓으로 上半期를 넘어스게 될것은 確實하다。

×

그러므로 都期後의 下半期 金融이 注目을 끄는데 七八月은 大體 資金의不需要期이며 적어도 第三、四半期까지는 第二、四半期以上의緩慢을 呈할것으로 볼것이다 그가 證明하는것은 廿五日에 發行한 第五十四回米穀證券二億六千六百萬圓의 發行條件이다 (政府當局은 三月以來 米穀證券의 割引率을 日步 七厘四分의一厘를 내려、六厘四分의三으로 統一하엿스나 이번 이것을 期限三個月、卽九月廿五日로 되야 이에 依하면 政府와 日銀當局은 적어도 七、八、九의 三個月間은 上半期보다도 緩慢케되지 안흘가 한다。

日銀當局에서는 公債、米券의 發行條件은 모두『언제든지 市場에 내여팔수가 잇는點에 着眼하므로 이번의條件도 期限三個月로 割引日步六厘四分三의 條件이면 充分히 팔리게될것으로 計算에서 나온것을 짐작할수가 잇슬것이다。

×

事實、市中銀行方面에서도手先 資金의 需要材料가 적으므로 期末資金의 運用處로서는 米券에 눈이 갈수박게업다 가령 日步가 四分의一厘引下가 되엇다고 하드래도 買入치안흘수가 업스므로 結局그 消化의點에잇서서는 念慮가 업다고 할것이다 그래서 問題는 米券割引日步의低下와 甲種銀行의 最高低日步協定問題이다 最高低日步協定은 지난 四月 預金利下를 하엿슬때에 問題가되야 最低貸出日步와當座貸越最低日步一厘가 引下되엇스나 當時의 諸市場은 市中銀行의 公債賣止으로 極度로 硬化하얏스므로 『常態로 依復하기까지』라는 理由로利下는 實現되지못한것이다

그뒤 市場은 政府一般會社支拂의 進捗과 公債賣止續行에 依하야 거의常態로 依復하엿스나 米券의 割引日步가 七厘로 不變이므로 이것이 一大障碍가 되야 實現치 못하엿다 그런데 이번에 가령 四分의 一厘로 引下되엇스므로 이것을 理由한 削減根據를 일케되야 七月에 일호며 그實現을 보게되지안흘가 한다。

×

이에對한 深井日銀總裁의 聲明에 依하면 다음과갓다 卽 『一般金利의 最低日步에 對한 實際往은 最近에 거의업게되엇다 特히 低金利의 進行에 依한銀行資金運用의 細分化에 依하야 一般低率의 要은 運用은 極度로 緊縮되야 그 結은 줄고 도리혀 硬化하는 原因도 되다 이情勢가 續하면 月中은 低下、月末은高騰이라는動搖가 더욱 大케될것이다

이것은 當然한일이나 一面需要의方面으로 보면 巨額受取方은 爲替銀行과 證券業者이며 爲替銀行方面은 最近東의 大入荷에 依하야 需要가 줄고 證券 市場은 時局을 反映하야 極度로 不振으로 二方面에 잇서서는 軟材料이다。여기에서 米券의 割引日步가 四分의一厘가 引下되고 따라서 最高低日步協定이 引下케되는것도 當然한結果일것이다。

×

要컨대 最高日步는 金利上 그다지 重要한意味가 업다고 하지만 그大勢는 日銀의公定利率과 한가지로 一指標가 되는 下半期의金融은 最高日步協定의引下를 契機로、다시 低金利와 緩慢에 拍車를 加하야 懸案의 公債賣止解除를 보게될 實現性이 잇지안흘가 하는所見이 잇다。

米價는騰?落? 產地는賣惜一貫

今後適雨가잇스면賣崩難免

各地正米市場無賣物

日本內地로 本年凶作의評를 이어 高價豫想人氣가 濃厚함을 따라 朝鮮도 產地의 態度가 稼度로 强硬하야 賣惜方針을 不哆하얏스며 그뒤 春暖低가 豫想되엇스나 그것도 역시 旱魃人氣高調로 期米暴騰과 相俟하야 一層 產地의賣氣를 減縮식히어왓섯다 前者 梅雨로 全朝鮮三割以上의 移秧進捗이 잇슨뒤 期米市勢는 高調 一巡의 觀이 잇고 騰勢가 減하얏슴에 不拘코 朝鮮內主要港正米市況을 보면 依然히 產地는 賣惜코 잇다 한다 다시 旱天이 繼續되어 凶作이不可避 되다면 지금 賣惜하는 產地가 高價로 팔게될것이나 만약 適雨가 오다면 高價豫想人氣失望으로 장황히 賣崩케 될念慮가 濃厚하야 今後의產地態度와 米價關係가 重視된다고한다

朝鮮白米不賣同盟

小賣業威脅한다고 ◇…大阪米穀業者協議決定

【大阪電話商通】大阪穀物同業組合에서는 過般組合總會를 開하고 朝鮮白米袋入의 小賣販賣는 今後全廢키로 決定하고 北區와 西淀川區에서는 이것을 斷行하고잇는 모양이다

今回의 朝鮮白米반이곳트 理由는 自治管理는 朝鮮玄米에 實施되어 日本內地에의 移出이 困難하기 때문에 朝鮮은 當然白米로서 日本內地各地에 販賣網을 擴張케될것이다 이렇케되면小賣業者는全히窮地에 빠질수밧게업다라는 것으로 이問題는 產地에 及하는 影響이큼으로 朝鮮으로서의反對 朝督府의出動이 必至로보이며 形勢가 重視되다한다

"朝鮮稅負擔 決코輕치안타"

東京所傳認識不足

▲財務局側談 外地增稅問題는 中央政府에서 內外地負擔公平의 見地로强硬히 主張하는데 右에對하야 總督府財務當局에서는 如左히말한다

日本內地의 增稅의 實現에伴하야當然히朝鮮도 이方針으로서 追隨하게될것은 必然하다 그러나 內外地의 負擔現狀을 單純히算術的으로 比較하야稅의均衡을 失함과如함은 認識不足이라겟고 現行稅率에잇서는 內外地間에 큰負擔의 不均衡은 招來치안흐리라고생각한다 從하야 一部日本內地로부터 傳하는것가티 外地가現在의 負擔은輕微함으로 增稅한다는것은 全然考慮치안코잇다

米運賃의 協定案決定

大阪協議會에서

過般名古屋及大阪에서 열린朝鮮米運賃協議會에서는 大體에左히協定案이 成立되어 二十七日부터京城에서 開催될協議會에 提案키로되엿다

一、阪神、京濱의運賃差는 百石에 十二圓으로할
二、名古屋荷主는阪神에追隨할
三、累進戾는認하나 現在의聯合會員旣得戾以下로하지안흘것
四、運賃은 着拂키로함
五、釜山、元山의荷主를參加케함
六、配船의 責任을 船會社에 負케함

宗主權을固執 協議會難關

朝鮮米輸送에關한 京城協議會는二十七日부터 京城俱樂部에서 開催하고 二十七日은 內外兩地荷主가 協議한後 二十八日 關係船會社間에 協議할것인데 兩者提携의 點에 就하야서는 內外地의 意見이 一致이나 運賃協定의 宗主權을 圍繞코相當히 難關에 逢着하리라고 보고잇다 協定成立時 船會社側은 責任積取의 關係上 往年의 鮮航會類似의 團體를 組織하게되리라한다

船會社代表渡東

朝鮮米輸送關係船會社十社中 京濱荷主關係의 日下部와近鄕을 除한八社代表는 二十七日朝 入京하야 二十八日부터의 會議에 出席하기로되엇는바 各代表氏名은 左와 하다

山口(朝郵) 香春(商船) 大田(中村組) 辻、靑木(澤山) 丸谷(東亞) 辻(辰馬) 三元(飯野) 淮田(尼崎) 그리고 大連汽船도出席할模樣이라한다

工場社會立法

知事會議에서必要力說

最近 朝鮮內工業의急激한發展으로 工業社會立法을 늣기게되야 이번의知事會議에서도 다음과가든點을力說하엿다고한다

一、工場法乃至工場取締監督에關한立法
二、職工爭議防止 乃至 그解決에關한施設
三、工業取締官의設置

日粉工場擴張

鎭南浦와沙里院

日本製粉은 曩者滿洲製粉의 鎭南浦、沙里院兩工場을 買收한바 兩工場의 現在能力二百五十바렐을 各各五百바렐로 擴張하고 不遠工場設備에 着手키로되엇는바 日本製粉의朝鮮工場能力은 仁川工場을 合하야 一千바렐로 될다고

商銀米資回收遲延

六月二十一日現在의 商銀米資貸金殘高는 米擔保一百八十七萬圓 有價證券百十一萬圓 合計二百九十八萬圓으로 이것을 前月末에 比하야 七十七萬圓의 減少、前年同期에 比하야 百六十八萬圓의 增加이라고

朝取定期總會

朝鮮取引所에서는 二十五日 午後四時부터 同所樓上에서 第九回定時總會를 開하고

一、第九期諸決算案承認의件
二、同期利益金處分의件
三、役員任期滿了改選의件
四、故監事田中佐七郎氏에 弔慰金贈呈의件

을 附議하엿는데 一割配當案은 原案대로 承認되고 役員은 全部重任하얏스며 四項은 役員一任이엇는바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 (單位圓)

當期總益金	三三〇、二三五
當期總損金	一五四、八一八
純益金	一五三、四一六
前期繰越金	九、一九三
合計	一六二、六一〇
右處分	
法定積立金	八、〇〇〇
別途積立金	八、〇〇〇
所員退職給與基金	三、〇〇〇
役員賞與金	一〇、〇〇〇
取引員獎勵金	三、〇六八
配當(年一割)	一二〇、〇四二
後期繰越金	一〇、四九九

取引停止 (六月二十三日)

諸鐵製造業 京城府金湖町九四番地 韓彰鎬

經濟界消息

○土木建築協會再建發起人會=朝鮮土木建築協會再建에關한 第一回發起人會는 二十六日 午後一時부터 열고 府內三十九組代表出席協議의結果 創立委員을 選任하야 곳創立準備에 着手하고 七月下旬 創立總會를열기로 되엇다고

○鮮滿拓殖公司法令公布=不遠創立할鮮滿拓殖株式會社新京支店이라고할 滿洲國法令은 公司에關한 鮮滿拓殖股份有限公司法令을 十六日公布하야 不遠施行될터인데 鮮滿拓殖의事業은 거의 同公司의活動을 基本으로하므로 鮮滿拓殖은 同公司에 一千五百萬圓投資의形式을取한다고

小麥增產計畫을 補强、擴充할方針

需要增大의關係로

朝鮮의小麥增產은 昭和六年의田作增殖計畫의一環으로서 作付段別四十二萬七千町步(二割增)收穫高三百四十一萬六千石(八割增)을 計畫目標로서 着手한것인데 小麥의增產은 施肥量多量으로要하는點과 自家食糧으로서의 價値가적은點으로 增產이遲遲不進하고 計畫의半인 昭和十年度에는 作付가 計畫着手前의 三十五萬六千町步에對하야 도리어 三千三萬町步로 減少되고 反當收量도 進展되지안흔 狀態이다 그런데 小麥의 朝鮮內需要는 日本內地 製粉會社의 進出等 製粉事業勃興에 伴하야飛躍的으로 增大하고 今次의 對滿通商擁護法의 發動은 更히 右增產을急務로하고 잇슴으로農林局에서는 十二年度以降、小麥增產計畫의擴充、補强을行키로되엇다 이對策은

一、高地帶에도 小麥을獎勵하야 栽培面積을擴大할
一、施肥의改善을하고 優良品種의育成을함
一、指導技術員의增配를함

等으로目下成案을研究中이라한다

重要商品界事情

綿絲市勢 目前、大勢觀

綿絲市勢가 사기도 어렵게되고 그러라고해서 米棉高를 眼中에 안두고 팔기도 危險한이다 이런때에 米棉低를 나라내면 實叫가나오게될가 만약 六月처럼 米棉十五錢低를 繼되면 이市勢의壽命도 길지 못할것을 짐작케될것이다 그럿치안코 이近還에서 總健한 거름으로 나아간다고하면 實方도 相當히 버티게될것이며 따려서 來月에 드러가 意外의 큰市勢가 展開되지안흘가 한다

돗코도 그와 反對로 뛰어다고하면 아즉도 노픈갑이 남어잇슴을 보히는것으로 생각할수가 잇다。

×

當限議은 賣方의 退陣으로 依然 硬調를 持續하는바 今月에 노픈갑을 나라내여 七八月限까지 賣方의退却이 繼續되면

×

루즈벨트大統領의 政權이 繼續되면 米棉의統制도 繼續케될것이다 米國의統制는 高物價統制이므로 低價之이며 古棉實止의 聲明、新棉作況의 早魃 其他 降雨過多 또 作付段別의 減少等은 强材料。

×

以上의材料로 보아서는 實方 進的實方針이어떠할가하며 纖維의積極化가 어렵고 따려서좀 떠 노픈갑시 잇슬는지 모른다 그럭나先物에 잇서는 漸 物의賣行이 조치못한것으로 보아서 安心買는 冒險의感이업지안라고……。

株式 突込警戒 少戾

前場一息 今前場은 買込警戒로 一息保合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二十九圓三十錢 日產三十錢低인 六十九圓四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三十圓三十錢에 各大引되고 말엇다

朝新有力買進

東新不勢에 不拘코 最近 朝新은 依然 三十圓臺를 堅持코잇는데 大原店을 通하야 約四千株나 買한 사람이 잇는데 表面으로는 賣玉을 내리지 안코 繼續하야 買할것으로 보이어 자못 注目된다。朝新買의 理由로는

商況 (廿六日)

『가련한것아 너의 일홈은 조선쌀이니라』……

○朝鮮米가 殺到되다고 自治理法을 맨들어노코 나서 이것때문에 朝鮮白米를 팔지안켓따 웬 수작인저

○여보 분수가 엇지

○自治管理實施로 朝鮮서 白米로 移出하겟스니 장사가 안되다는것이 理由

○大阪서 朝鮮白米 小賣全廢決定實施

○自治管理를 朝鮮大衆이 바라서 實施한것인가?놀놀이 뭐다

經濟寸鐵

株式情報

新百五十四圓九十錢으로 五圓丁 大新十圓丁 日魯六十八圓五十錢 이었다

後場少戾 後場은 東新百三十圓二十錢、日產七十圓十錢、朝取七十錢、新百五十五圓三十錢 朝新三十圓四十錢 日魯六十八圓九十錢에 各反戾大引하다

株式情報【大阪電話商通】▲日鐵 二十五日總會로 二十五日七分으로決定▲三菱商事 二十五日總會로 二分增配인 六分可決▲滿洲工廠 二十七日의總會로 九分据置案을附議▲日石 二十五日役員會에서 新株八十萬株에對하야 六百萬圓의 拂込徵收로決定拂込期日은 十一月二十日▲大株 三十五日總會에서 七分七厘配可決▲日魯 三十五日總會에서 一割配可決

新政策提唱重 目前亂高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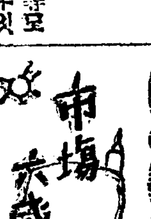
新政策이 數字的으로 提示되에 伴하야 一時的衝動은 難免이겟스며 그것도 程度問題이오 最近은 軍部豫算以外에 產業、文化施設에相當한 豫算이 計上되어 가는터이나 十二年度豫算은 意外의增加로 三十億의大臺를 이되기쉬울고 가령 六億增加라 三億은增稅、三億은 赤字公債로하면 消化力이 危懼되며產業과文化施設은 結局好材料라하겟스나 新政策具體化를 조차目前亂高下가잇거쉬우리라는말이잇다

眞正底入後에 初秋高示現?

廣政一新 貿易 稅制 金融等모든것을 國勢將來進展으로볼수잇스나 株式市勢의 現實로서이大勢觀이 반드시 一致하는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夏枯閑散無市勢로보아왓스나 여름동안에或은 眞正한 市勢의 底를보이고 서 初秋市勢或은 昨秋市勢가展開될것이아닐가 特히 東新가든것은 內部的으로 또는社會的으로 또는 法制的으로 一新을前途에두엇스니 高價는 愼重謙愼裡에警戒할것이라는말이잇다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五五 ▲一回四分利 [illegible] ▲二回四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illegible]



㊑……東新大勢觀者의 講談 一席▲東新의 豪華時代는明治年間、五、一五事件에서二、二六事件으로 東新의 財界바로메타의 資格은永去▲今後는米國株界와가티 工業株、鑛業株鐵道株 各幾十種平均의 騰落으로 財界好惡을 示케될것▲勿論株式取引所는 會員組織이約束되어잇고 그동안은 保株의地位로 步一步걸어갈뿐▲株算株로서의 東新은 百圓도割高라고 ▲얼마나 東新에人氣업슴을 證할인가?떠러지는때이라 이런소리도나오는 모양

㊋……金太는 實方의唯一한主力側으로서 그表面의 取組는勿驚!約九萬石、今後實買를實施한後에 처음보는現象▲그裏面에 潛在한 石數까지合하여본다면 적어도 二十餘萬石은 無慮할것이라고 今後의此戰이果如何?▲그反面의來客은 總實化하고 地場은 大部分實賣成이라 압호로 그主客사롭이 大壯觀일모양▲昨後場의 瓦落은 何等의 新材料를 胚胎하지 안헛스니 此는地場의 作戰인것이 分明▲地場이 絶對 高價를 許하지안코 此邊에서 保勢를 支持하다가 一朝 好雨를 待하야 殺人的大瓦落을 告하게할지누가알랴? 注意 注意!

七月市勢如何

昨年과今年關係

昨年은 七月中旬이 年中最低價이엇다 이것은 무슨因緣인지 今年도 七月에對한 不安이적지 안흘모양이다 今年은 四、五、六月의 三個月間출는고 七月에 一整理하면 八月은 또올릴順番가트니 此際잠아리순調의 整理가必要하야 六月下旬부터 整理가展開될것이라고 보는便이잇다

今日財界 (廿六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正米 一石 [illegible]

◆市中金銀價

◆株 (單位錢)

朝新 東新 日產 ◆商品 (先限單位圓)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ゴムFAQ [illegible]

1、米豆部의 業績이 全國米取引所中 第一位인것
2、米豆取引所가 一個로되다면 朝鮮의 米取引所도 朝取一個所로 되리라는것에 企待를 갖는것

에잇다하겟는데 그러라고 小口의 追從은 依然 躊躇되엇다

期米 買氣不昂 鈍狀

前場伸悩 昨後場阪地三十四圓十九錢止와 共히 三十二圓十錢으로 小戾할을 伴하야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四圓十七錢인 二十丁低를 反映하고 三十二圓二十錢으로 場을始하야 反騰하야 十六錢까지 反落하더니 阪地十六錢까지의 反落에 買氣다시 萎縮되어 ○八、九錢에서 保合하엿다가 阪地二十二錢으로 二十一錢에 止場을告하엿다

後場鈍狀 後場은三十二圓低로 場을止하엿다 ○一錢에四丁低로 始場後 四節○七錢이엇스며 ○四錢에 鈍化止場하다

當分恢復難期

地場壓到賣로

昨後場의瓦落은 地場의猛烈賣로 何等의 弱材를 胚胎하지안코 約四十丁의 奔落을告하엿스며 地其他各地市場은 北朝鮮의降雨說에 刺戟을바다 一齊히 反落을告하엿다 그러나 今朝의天候는 曇天無風으로 아즉降雨의希望이 엇다 十五木丁의反高를示한後 反히伸悩의 狀態를呈하다 要하면 植付의時期가 遲延되우 日에 잇서 누구나 一朝의 好雨를 期待하는中이나 旱魃市勢는 旣히 一巡한 感이 업지안는 高値의 當地三十四圓五十九錢은 最高公定價格에 接近된 關係로買方으로 今後旱魃이 繼續하야植付의 可望이 全혀업는때는 몰라도 그러치안는 限에는更히 高價를 내지못하고 以上의 中間保合을 하다가 一朝降雨를 待하야 地場側의 雪辱戰이 又復展開될지도 亦未知이라고 云云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限	◆買方
[illegible]		[illegible]

三期의開鞘觀

逆鞘又는縮鞘

淸算市場의 各限의 開鞘는 九月限에入하기까지 即新米往의十月限이 發生하기前까지는 逐次上鞘로 發會되는것이 金利及倉庫料의關係로보아서 當然하다고 볼수잇다 그럼으로 今當限은 五月一日 七限이 發生할때에 先限보다 二十九丁의下鞘이엇고今 中限은 今月一日 八限이發生할때 에 先限보다 四十三丁의 下鞘이 엇섯다 그러나 昨今에 至하야 는 此三期의 開鞘가 一定하지 않하며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昨夜急軟化한 市勢도 强氣의 買幕로 反戾되엇스나 値頃警戒로 또 下向步調로 轉하얏고 軟派의 戾待賣로 軟調이 엇스나 突込警戒로 下支氣味이 어다 材料가른材料는 市勢에 織

各地正米

買方=地場 强氣側 正米側 朝鮮側

賣方=中央側 地場軟派 中谷

一般新規動機待모양이다

込濟로 仕手는 積極的으로 動치안코 活氣업는 場面으로 一

京城不變

日照繼續으로 定期軟調에 不添하고 强堅保合인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二十七圓五十錢

仁川同調

部分的으로 永不足이오 依然移秧樂觀에 不至하야 投機側의 持意는 極히 强硬하나 反面商談은極端으로 寂寞하얏다 丸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二十三圓三十錢

釜山下放

日本內地로부터의 注文이 全無하고 期米의 下走로 押下米、蓬萊米에 壓迫되어 唱은 十錢軟化인 角ㄱ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大邱少弱

一等白米 十三圓四十一錢 비가오지안어 人氣만 强하나 取引은 極度閑散 繼續되엇다 今朝는 期米低로 十錢低引되엇다 角ㄱ三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〇五錢

群山軟調

日本內地商議社과 期米의 引緩으로 更히 十錢低硬配이나 產地依然하야 產地의 態度는 强하얏다 ㄲ등三等三十一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底堅

定期는 軟調이나 產地의 商況強調으로 取引은 잘되지안흐나 人氣만 强하야 底堅하고 保合인丸木三等三十二圓丁 四等三十二圓三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丁

株式會社 京城金益證券 / 仁川 康益賣商店 / 光皿

土金石金 ㊗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黃金町二丁目九 電話本局四八五六